

연곡사 석조문화재 양식적 특징과 조성배경 연구

황 호 균*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3. 구례 연곡사 동승탑비 |
| II. 연구 성과 | 4. 구례 연곡사 복승탑 |
| III. 선종구산문과 연곡사 석조문화재
조성배경 | 5.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
| IV. 연곡사 석조문화재 양식 특성 | 6.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
| 1.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 7. 그 밖의 승탑 |
| 2. 구례 연곡사 동승탑 | 8. 기타 석조물 |
| | V. 마무리 말 |

I. 들어가는 말

연곡사와는 참으로 긴 인연이 있다. 그 시기도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엄사 구충암 지대방에서 청춘의 열병을 삭이던 시절, 노고단에서 흘러 내려오던 계곡 물소리조차 심금을 울리고 바람 소리는 왜 그리도 사나웠던지? 그래도 화엄사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디게 해준 좌우 벌어진 어머니 젖가슴 같은 포근한 산사였다. 그때 눈으로 담았던 화엄사 경내와 탑전·구충암·봉천암은 불교문화재를 공부하는 내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떤 때는 그러한 경험이 성보문화재의 조성 배경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1993년 1월에 연곡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구충암이 선방으로 운영되던 옛 시절과도 분위기가 흡사해 놀랐다. 묘탑에 새겨진 여러 물상의 솜씨는 신묘 그 자체였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19세기 중·후반에 당대 뛰어난 선지식인 허주덕진의 수행처가 화엄사 구충암과 연곡사임을 알고 소름이

*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 / 前) 전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관 / 남도불교문화연구회 회장 역임 / 現)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논문접수일 : 2020. 5. 8., 논문심사일 : 2020. 5. 11., 게재확정일 : 2020. 6. 10.

돈았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구층암과 연곡사는 당대에 유명한 선방으로 이름을 날린 가히 참선 도량이었던 곳으로 그 면모가 새롭다.

연곡사에는 유서 깊은 전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훌륭한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어 찬란했던 옛 영화를 말없이 전한다. 비록 세 차례의 병화에 모두 불타버리고 석조문화재들만이 남았지만 승탑에서는 당대 최고의 선승들이 남긴 香煙이 가득했다.

이 글에서는 두 차례의 미술사와 고고학적으로 접근한 자료¹⁾뿐만 아니라 각종 문헌자료에서 등장하는 모든 정보들 가운데 석조문화재를 언급한 것을 심층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역사적 신빙성이 발견되어 많은 활용을 기대하며 자세히 다루어 보았다. 삼층석탑(금동여래입상), 동승탑과 동승탑비, 북승탑과 현각선사탑비, 소요대사탑, 그 밖의 승탑, 기타 석조물에 대해 형태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문헌자료에서 등장하는 자료들과 연결해서 살펴봄으로써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도 깊게 생각하면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연곡사에 대한 접근으로 석조문화재의 양식적 특성 도출과 역사적 인식을 고증하여 석조문화재의 조성배경을 밝히는데 한 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소망도 담아 보았다.

II. 연구 성과

연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다. 행정구역상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806-16 연곡사 (내동리)(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에 자리한다.

연곡사는 세 차례의 방화로 소실된 역사에 비해 비교적 많은 문화재가 남아 전해진다. 그것은 대부분 석조문화재들로 삼층석탑 1기(금동여래입상 1구), 승탑 6기(동승탑, 북승탑, 소요대사탑, 보월당영탑, 조선후기 승탑, 종인화상 승탑), 비 3기(동승탑비, 현각선사탑비, 고광순 순절비), 석등 부재 1기, 초석 11점, 맷돌 5점, 돌확 1기, 석등 2기, 괘불지주 1쌍, 건물 10여동으로 모두 51개이다. 동승탑(국보

1)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1993, 전남대학교 박물관.

강삼혜,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教美術研究 調査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구례 연곡사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2013, (재)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연곡사.

제53호, 9세기 후반 경, 870년 이전)과 삼층석탑(보물 제151호, 9세기 후반 경)을 비롯해 북승탑(국보 제54호, 고려 초기, 979년 이전), 동승탑비(보물 제153호, 9세기 후반 경), 현각선사 탑비(보물 제152호, 979년), 소요대사탑(보물 제154호, 1650년)이 그것이다.

국보 2점(동승탑, 북승탑)과 보물 4점(삼층석탑, 동부도 비, 현각선사 탑비, 소요대사 승탑)의 문화재를 통해 신라 말기에서부터 고려 초기에 걸쳐 가장 크게 선풍(禪風)을 휘날린 선종 사찰임을 웅변한다. 이렇듯 한 사찰에 국보 2점과 보물 4점의 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찬란한 옛 영화를 웅변하려는 듯 경내 여기저기 신묘한 솜씨를 뽐내고 서 있다.

연곡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현각선사비에 대한 금석학의 접근이 주된 관심이 었다. 조선 후기인 1668년에 펴낸 이우(李僖)의 금석문 탁본 서첩인 『大東金石書』에 맨처음 현각선사탑비의 탁본이 비석이 파손된 흔적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수록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옛 탁본첩>에 『大東金石書』(1668년)와 동일한 비석 탁본뿐만 아니라 탁본 2장이 더 실렸다. 『朝鮮金石總覽』(1919년)은 이러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옛 탁본첩>을 판독한 자료이다. 『槿域書畫徵』(1928)에도 『海東金石總目』이라는 출전을 밝히며 玄覺禪師碑를 정보를 설명하였다. 『東國金石評』과 『書鯖』에도 현각선사비에 대해서 글씨체와 서풍을 말하고 있다. <불교>제39호(1927년)에도 또 하나의 비편 탁본이 실려 있다.

이러한 금석학에서의 현각선사탑비문에 대한 관심 이외에는 사실상 연구다운 연구가 진척되지 못했다. 다만 조선후기의 지리지나 고지도에 언급한 내용 외에는 노산 이은상의 <지리산탐험기>(1938년)와 김창호의 답사기(1949년)²⁾가 그나마 연곡사의 당시 모습과 거주 승려들을 통해 전해들은 정보들이 담겼다.

화엄사 승려 정병헌이 1924년에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의 부록에 실은 「智異山 鰲谷寺 事蹟記」³⁾는 사명 유래부터 창건 및 중창의 과정과 1928년의 대웅전 중건도 추가하였다.

이후 연곡사의 부도에 대한 일련의 논문이 발표되어 시선을 끌었으나 석탑이나 탑비도 다루지 못한 한계 속에서 깊이 있는 논증에까지 이르지 못했다.⁴⁾

2) 金昌浩, 1949, <내고장의자랑! 옛美術을 차져서, 感懷의 古僧都 燕谷寺篇>, 東光新聞 第965號 (6권), 東光新聞社(광주).

3) 鄭秉憲, 1924, 「附 智異山 鰲谷寺 事蹟記」,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

4) 박춘규, 1976, 「鰲谷寺 浮屠에 관한 一小考: 八角堂式 浮屠의 樣式 變遷을 中心으로, 全國大學生 學術研究發表 論文集: 人文 分野.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제1집.

김부건, 1983, 연곡사 부도의 조형양식 및 그 조형의장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곡사 원경(1978년)

더욱 본격적인 연구로는 1993년에 긴급히 이루어진 지표⁵⁾ 및 시굴조사⁶⁾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⁷⁾ 이러한 연구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석조문화재를 통해 신라 말기에서부터 고려 초기에 걸쳐 가장 번성한 사찰이었다는 사실과 세 차례의 화재와 세 시기 문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고려 후기를 거쳐 조선전기인 정유재란으로 사역 전체가 일본군의 방화로 소실되기 전까지의 역사적인 발자취는 알려지지 못했다. 이후 조선 후기에 소요태능에 의한 중창기를 거치게 된다. 이후 1907년에 고광순 의병 등과 일본군의 전투로 두 번째 소실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기의 피아골 전투로 세 번째의 병화를 입게 되었다.⁸⁾

석사학위논문.

박춘규, 1983, 「薦谷寺 浮屠에 關한 一小考」, 향토문화 제8집, (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

5) 李榮文, 1993, 「연곡사의 위치 및 환경」,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李啓均,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黃鎭均·林永珍, 1993, 「연곡사의 시굴 조사」,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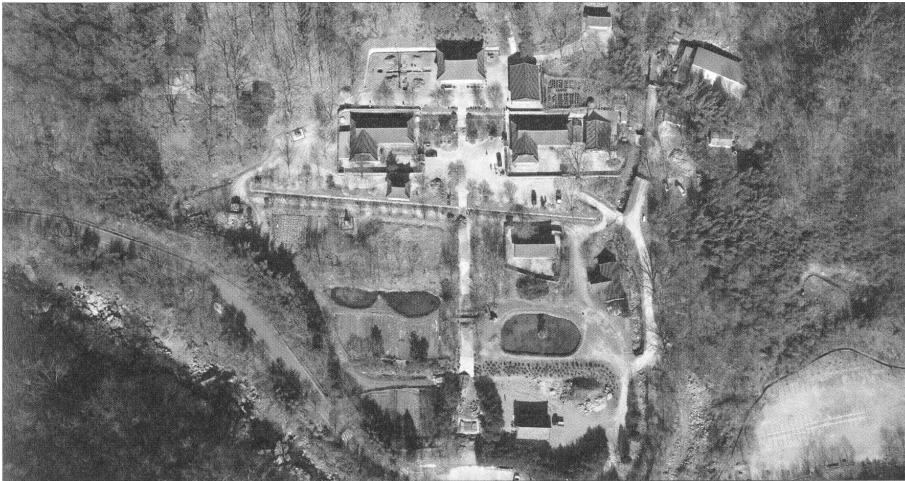
黃鎭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崔仁善, 1993, 「연곡사 주변의 불교 유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6) 시굴조사기간: 1993.1.15.~1.19.

7)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3,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8)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1993, 전남대학교 박물관. 20쪽·51쪽.



연곡사 원경(2013년, 드론 촬영)

특히 지표조사에서는 연곡사에 대한 연혁이 처음으로 정리되었으며 주변 암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더 큰 성과는 연곡사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야말로 총정리 성격의 연구 성과물이 등장한 점이다. 가장 돋보인 점은 그때까지 알려졌거나 새롭게 조사된 현각선사비편을 모두 망라하여 정리한 점이다.

이후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연구 자료들이 발표되었다.⁹⁾ 이들 연구에서는 승탑

9) 이지관, 1995, 「求禮 蘆谷寺 玄覺禪師塔碑文(原文校勘, 역주)」,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伽山佛教文化研究院.

홍영호, 1998, 「한국 삼중기단석탑의 출현과 전개에 관한 시고」,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정영호, 1998,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출판부.

황호균, 2000, 蘆谷寺 玄覺禪師塔碑 校勘, 《特輯》全南地域 金石文 校勘 1 : 『불교문화연구』 제7집, 남도불교문화연구회.

鄭明鎬, 2002, 「연곡사 東·北 兩浮屠의 相輪 資料에 대한 新考察」, 『文化史學』 제17호, 한국문화사학회.

엄기표, 2003, 『석조승탑』, 학연문화사.

成春慶, 2003,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제20호, 한국문화사학회.

이현수, 2005.8, 『한국 팔각당형 승탑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姜三慧, 2006, 「나말여초 僧塔 塔身 神將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252, 한국미술사학회.

강삼혜,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教美術研究 調査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편수현, 2010, 『구례 연곡사 동승탑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 2010, 『전라도와 경상도 석조물에 나타난 주악상에 관한 연구 - 가릉빈가를 중심으로 -』,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에만 그치지 않고 현각선탐비의 교감이나 삼층석탑 등 석조미술 전체로까지 영역을 확대한 점이 그나마 주목된다.

근래에 한 번 더 이루어진 시·발굴조사¹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시굴조사 결과 대상부지 전체에서 3시기 유구층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조선중기 화재층(문헌기록상 임진왜란 소실)을 중심으로 하부에서 고려시대 초기부터 고려시대 중기까지 유지되었던 건물지의 초석과 기단열 및 배수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건물지 동쪽에 고려시대 중기에 축조되어 조선시대 중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렬 2기가 확인되었다. 조선중기 화재층 상부에 소요대사에 의해 증건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궁이 2기 및 석렬 1기,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2차 유구층 상부에 조선시대 후기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기단 석렬 1기 및 석렬 4기 등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에 축조되었던 건물지 등 관련 유구는 조선시대 중수과정 중 상당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유물로는 연화문 수막새, 당초문암막새 및 해무리굽청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경내 석조문화재 가운데 일부 통일신라기 유물은 확인되고 있으나 관련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려시대 초기 초석과 기단열은 연곡사 경내에 고려시대 초기 연곡사 석조물과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가 잔존하고 있고 연화문 수막새편과 당초문 암막새편 및 연봉편 등 주요 출토 유물을 통해 대적광전 주변이 고려시대 초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찰의 주요전각이 위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¹¹⁾

III. 선종구산문과 연곡사 석조문화재 조성배경

연곡사의 석조유물들은 신라하대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인 선종의 도입으로 고려 초까지 구산선문이 형성되던 시기의 선종사찰로 그 중심에 서 있던 역사를 증명한다. 특히 도선과 관련된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구산선문 중 동리산문에 속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동리산문은 태안사의 寂忍禪師 慧哲(惠哲)이 개산조이며 2대 여(如)선사, 3대 廣慈大師 允多로 법맥이 이어졌다.¹²⁾ 도

10) 시·발굴조사기간: 2010.11.29.~2011.1.20.

11) 김진덕·김선·김경식·양종현, 2013, 구례 연곡사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연곡사, 147쪽.

12) 高翊晉, 1989, 「新羅 下代の 禪 傳來」,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492~493쪽.

선은 동리산문의 방계인 옥룡사 계열로 보고 있으며 도선의 비문에는 846년(문성왕 8)에 도선이 동리산문으로 들어간 기록이 전한다.¹³⁾

승탑과 탑비는 9세기 선종의 유행과 더불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선종은 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정통의 법을 전하는 사제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이러한 선종의 전통 아래 법맥이 중시되고 각 문파가 형성되면서 경전보다 가르침을 전수한 스승을 높이 받드는 관습으로 인해 선사들의 입적 후 승탑과 탑비가 만들어진 것이다.¹⁴⁾ 선종이 유행하던 나말여초에 건립된 연곡사 승탑과 탑비는 당시 융성했던 선종의 위상과 연곡사의 사세를 짐작하게 한다.

통일신라시대는 8세기 4/3분기부터 이른바 하대신라라는 새로운 사회로 들어서는 격변기이다. 무소불위의 절대왕권이 쇠퇴하면서 귀족연합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지방분권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상도 교종보다 혁신적인 선종이 득세하게 되는 일련의 변혁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교종은 왕실과 귀족에게 결탁하여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고 이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은 바로 선종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개혁운동인 것이다.

신라하대의 불교가 백성의 고통은 외면한 채 왕족과 귀족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할 때 중국 당나라의 서당 지장스님에게 남종선을 배워온 여러 선승들이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선문을 열게 되는데 이를 보통 구산선문이라 부른다.

사람의 운명이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는 운명론적 인식의 교종불교는 종래 귀족과 왕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선종의 사상은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을 제공하였다.

선종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시는 도중 말없이 꽃을 들자 제자인 가섭만이 빙그레 웃으며 그 뜻을 알아 이심전심(以心傳心)하였다는데서 유래한다. 달마대사가 갈대 잎을 타고 동쪽으로 와 중국에 전한 뒤 6조 혜능과 신수 등에 의해 널리 유포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선종이 전래된 것은 남악회양의 법을 이은 마조도일의 법손 서당지장의 남종선으로 9세기 초에 전래되기 시작하여 신라하대에서부터 고려 초에 이르는 사이에 크게 산문을 이루고 번성하게 된다.

13) 李智冠 校勘譯註, 1994,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證聖慧燈 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433쪽.

金社珍,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一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 57, 4쪽.

14) 蘇在龜, 2001,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21쪽.



신라말 고려초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형성된 9개의 선종 산문의 분포도

선종구산문(禪宗九山門)은 중국 선종이 유입된 후 신라 말 고려 초에 형성된 9개 산문을 가리킨다. 선종구산문은 도의(道義)의 가지산문(迦知山門), 홍척(洪陟)의 실상산문(實相山門), 혜철(惠哲)의 동리산문(桐裏山門), 도윤(道允)의 사자산문(獅子山門), 낭혜(朗慧)의 성주산문(聖住山門), 범일(梵日)의 사굴산문(闍崛山門), 지증(智證)의 회양산문(曦陽山門), 현욱(玄昱)의 봉림산문(鳳林山門), 이엄(利嚴)의 수미산문(須彌山門)을 말한다.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여, 경전에 의하지 않고 자기 내에 존재하는 불성(佛性)을 깨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하여 밖으로

부터의 모든 인연을 끊고[外息諸緣], 깊은 산간에 파문혀 수행하는, 이른바 좌선을 행하였다. 절대적인 불타(佛陀)에 귀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불성의 개발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선종사상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지방에 웅거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지방호족의 의식구조와 부합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 말기 선종의 유행은 지방호족이 대두되는 사회상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신라 중엽 무열왕계가 의도한 전제정치는 점차 귀족세력의 반발을 받으면서 실패로 기울게 되었다. 혜공왕대가 되면 족장으로 생각될 수 있는 96각간(角干)이 서로 다투는 속에 왕은 난중에 살해되고 전국이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쟁탈전에서 패배한 중앙귀족이

지방의 연고지에 내려와 지방호족으로 되어 갔다.

한편 신라 중엽 이래로 촌(村)의 장에 불과한 촌주(村主)들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꾸준히 그 지위를 향상시켜 왔다.

신라 말기에 이르면 그들은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성을 다스리는 지방의 토착 호족세력으로 성장하여 성주나 장군으로 자처하였다. 해상무역이라든가 그 밖의 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 지방에 강한 기반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지방 민중과 쉽게 결합할 수 있어서 사회의 명망과 권세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신라 말기에 중앙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지방호족이 대두하여 그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 가는 분위기 속에서 선종은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선사(禪師)들은 중앙의 지배층에서 몰락한 6두품 이하의 하급 귀족 출신이거나 중앙 진출이 불가능한 지방호족 출신이다. 나말여초의 선종 승려 가운데 30인 정도의 행적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절반가량이 김씨(金氏)로 나타난다. 아마 김씨가 아닌 나머지는 6두품 이하의 신분층에 속해 있었고 김씨라 하더라도 경주 출신이 아닌 선사들은 역시 6두품 이하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문도들의 규모는 동리산 적인혜철(寂忍惠哲, 785~861년)의 제자는 수백 인, 사자산 징효절중(澄曉折中, 826~900)의 제자는 1,000인, 낭공행적(朗空行寂, 832년~916년)의 제자는 500인이 있었다. 적계는 수백인에서 많으면 2,000인에 이르기까지의 선종산문에 소속된 문도들은 상인이나 유망 농민은 물론 심지어 군적(群賊)의 무리까지를 포용하고 있었다.

동리산문은 서당의 법을 받아 개창했다. 개조 혜철은 839년(신무왕 1)에 중국에서 돌아와서 태안사를 건립하여 거주하였는데 처음에는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문성왕이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시책을 묻자 봉사(封事) 몇조를 올렸는데 그것이 모두 시정의 급무라고 하였다. 혜철의 제자로는 도선(道詵)이 있었다. 도선은 태안사에 머물지 않고 광양에 옥룡사(玉龍寺)를 다시 건립하였다. 풍수지리에 정통한 도선의 행적은 신비에 쌓여 있는 면이 많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런데 도선은 개성 중심의 풍수지리설을 제창함으로써 왕건이 고려국가를 건설하여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이념을 제공하였다. 지금 남아 있는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은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 사실이나 당시의 모든 풍수지리설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것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지방을 명당이라 함으로써 지방호족 세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방호족은 저마다의 풍수지리설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호족 세력을 정당화하는 면에서 그것은 선종과 통하는

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선종과는 달리 서로 배타적이어서 한 지방이 국토의 중심인 명당으로 되면 다른 지방은 중심이 될 수 없게 된다. 왕건이 고려국가를 건설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개성지방의 풍수지리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⁵⁾

도선의 제자인 동진경보(洞眞慶甫, 869년~948년)는 892년(진성왕 6)에 중국에 들어가 동산(洞山)의 제자인 광인(匡仁)의 법을 받았고 921년(경명왕 5)에 견훤의 도움을 받고 귀국하여 전주 남복선원(南福禪院)에 머물고 있다. 이때 그는 분명히 견훤에게 유리한 풍수지리설을 주장하였다. 이런 면에서 도선 계통의 풍수지리가 일찍부터 개성 중심이었다는 데 대하여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936년에 경보가 왕건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왕건과 연결되는 것은 아마 뒤에 다시 백계산(白鷄山) 옥룡사로 이주하고 난 뒤였으며 어쩌면 견훤의 귀순 전까지는 왕건과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¹⁶⁾

나말여초 선종사상의 경향은 진성여왕을 전후하여 크게 변하고 있다. 진성여왕 이전의 그것은 개인주의적이었고 왕실과 지방호족의 쌍방에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성여왕 이후가 되면 그것은 왕실과 결별하면서 점차 지방호족과 연결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후삼국 정립기가 되면 선종사상은 개인주의적인 면보다 '외화(外化)'에 비중을 두었고, 따라서 지방의 대호족이 주위의 군소 지방 세력을 포섭동화하는 것을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선종사상의 경향은 왕건이 고려국가를 건설하여 후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어 교선일치사상이 등장되어 갔다. 고려 초의 교선일치사상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는 경향과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전자에 속한 자로 법경현휘(法鏡玄暉, 879년~941년)를 들 수 있으며 광종대의 법안종사상은 이러한 경향과 맥락이 닿을 수 있다. 후자에 속한 자로는 법인탄문(法印坦文, 900년~975년)을 들 수 있다.¹⁷⁾

연곡사 동승탑과 탑비는 승탑 건립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나말여초에 제작된 여러 승탑과 탑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준다. 동승탑은 쌍봉사

15) 金社珍,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一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 57.

16) 金社珍,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一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 57.

17) 김두진, 1986, 「신라하대 굴산문(掘山門)의 형성과 그 사상」, 『성곡론총』 17.

金社珍,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一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 57.

철감선사탑이나 봉암사 지증대사탑 등의 860~880년대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통일신라 9세기 후반 양식을 띠고 있다. 또한 이 시기 승탑 탑신에는 사천왕이나 혹은 제석·범천상 등 부처를 외호하던 신장을 부조로 새겨놓아 승려의 위상을 부처의 위치로까지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곡사 동승탑 팔각 탑신에서도 대좌와 광배를 갖춘 사천왕상을 부조로 새겨놓았다. 이러한 신장상들은 같은 도상이 반복되고 있어 시대에 따른 일정한 양식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탑의 제작 연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경), 보림사 보조선사탑(880년), 연곡사 동승탑의 사천왕상을 비교해 보면 철감선사탑의 경우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왕이 밟고 있는 대좌를 탑신 아래에 위치시키고 앞으로 돌출되게 표현하여 마치 문 옆에 사천왕이 실제로 서 있는 듯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천왕상 위치가 점점 탑신 안쪽으로 들어가 마치 액자 안의 그림처럼 사천왕상이 문양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동승탑과 탑비의 양식은 특히 사자산문인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과 탑비와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같은 석공 계열에 의해 조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부도의 탑신에 조각된 사천왕상 도상 역시 복식이나 자세, 네 가닥 천의의 모습 등에서 흡사하며 탑비에서도 이수에 화염형 보주가 꽃혀 있는 모습이나 비좌의 치석 수법 등이 흡사하다.¹⁹⁾

연곡사 북부도는 스승의 탑인 동부도를 모방하여 제작한 제자의 탑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역 내에 스승의 탑이 있으면 제자의 탑은 선대 스승의 탑을 모방하여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태안사 적인선사탑과 광자대사탑, 봉암사 지증대사탑과 정진대사탑, 고달사지 두 탑의 경우가 그러하다.²⁰⁾ 그러한 점에서 비록 동승탑과 동승탑비처럼 같은 축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각선사탑비(979년)와 짝한 승탑으로 북부도를 상정할 수 있다.

연곡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말 경에 제작된 기단이 3층으로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고려 중기 이후와 조선 초기 연곡사의 역사를 말해주는 유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정유재란 이후 연곡사를 중건한 소요대사탑(1650년)이 경내에 전한다. 이 승탑은 앞의 두 승탑 상륜부를 본떠 봉황 조각을 새겨 화려하게 장엄하고 있다. 또한 나말여초의 두 승탑과 달리 탑신에 탑 이름을 새기고 제석과 범천상 대신

18) 강삼혜, 2006, 「나말여초 僧塔 塔身神將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252, 104~105쪽.

19) 강삼혜,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教美術研究 調査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143쪽.

20) 蘇在龜, 1999, 「新羅下代 石造美術樣式 研究方法論」, 『美術資料』 62호, 46~47쪽.

인왕상을 새겼다.

IV. 연곡사 석조문화재 양식 특성

연곡사 석조문화재 양식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삼층석탑(금동여래입상), 동승탑과 동승탑비, 북승탑과 현각선사탑비, 소요대사탑, 그 밖의 승탑, 기타 석조물에 대해 형태적인 분석과 문헌자료에서 등장하는 자료들과 함께 살펴보고 고증을 통해 석조문화재의 역사적 변천 과정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한다.

1.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금동여래입상)

지정별 : 보물 제151호

지정일 : 1963.01.21.

시 대 : 통일신라말(870년경)

크 기 : 상륜부 제외 현재 높이 431.0cm

형 식 : 3층기단 삼층

1) 위치 및 현상, 역사적 변천

연곡사의 일주문을 지나 사역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1980년대만 해도 석탑의 바로 위쪽인 북쪽에 동서로 가로지르는 비포장 길이 나 있었으나 이 길을 계곡 주변인 남쪽으로 돌려 아스팔트 포장까지 하였다.

이 석탑의 삼층 옥개석은 떨어져서 주변에 덩굴던 것을 1967년 1월에 해체 수리 후 복원하였다. 당시 보수를 위하여 해체하다가 상층기단 안 자연 판석 위에서 높이 23.5cm 금동여래입상 1분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때 떨어져 있던 3층 옥개석을 복원하였다.

2) 양식적 특징

화강암을 이용해 만든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양식이지만 기단부가 2층이 아닌 3층이다. 탑신부의 지붕들은 전형적인 방형탑으로 삼층을 유지하고 있다. 상하층 버팀기둥(撐柱)가 1:1인 소형탑으로 9세기 후반 양식을 보여준다.

석탑은 전형적인 이중기단 석탑양식에서 하나의 기단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3

중의 기단부를 형성하였다. 하층기단은 면석과 갑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면석은 귀틀석과 판석을 이용한 8매로 구성되었다. 갑석은 총 6매로 상면에 각출된 탑신 괴임이 없다. 중층기단은 저석과 면석이 1돌로, 동서면에 2매씩, 남북면에 1매씩 ‘H’자형으로 엮거나 짜서 만들었다. 모서리에는 모두 바깥기둥(隅柱)이 있고 중앙에는 1주의 버팀 기둥을 새겼다. 갑석은 3매로 아랫면에는 부연(付椽: 겹처마에서 서까래 끝에 거는 짧고 방형단면인 서까래)이 없고 상단 중앙에 호각형(弧角形)의 2단 받침을 마련하여 상층 면석을 받치고 있는데 활 모양(弧形)받침에 비해 각진 모양(角形)받침은 매우 낮다. 상층기단의 면석은 남북면 좌우에 바깥 기둥이 있는 면석을 놓고 동서면 중앙에 1주의 버팀기둥을 지닌 면석을 넣은 판석으로 짜 맞춰졌다. 갑석은 1매로 하단에 각형 부연이 있고 상단에는 각형 2단 받침으로 탑신을 받치고 있다. 갑석은 단부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주었고 모서리에 합각(合闕: 지붕 위 양옆에 박공으로 ‘人’자 모양을 이룬 각)선이 뚜렷하다.



삼층석탑 옛 사진(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36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삼층석탑 현재 사진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매씩 총 6매로 구성되었다. 탑신은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한 개의 돌이며 각 면에 모서리에 우주를 새겼다. 탑신석은 모두

모서리에 우주를 새겼으며 문비 조각 등의 장식은 없다. 지붕돌은 두터우며 모두 하단에 4단의 층급받침을 새겼으며 상단에는 낮게 1단의 각형받침을 두어 위층 탑신을 받고 있다. 옥개석의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부에서 경쾌한 반전을 보인다. 전각부의 모서리 좌우에 1개씩의 풍경공이 남아 있다.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고 현재 반구형의 부재를 얹어 놓았으나 원래 상륜 부재는 아니다.

이 석탑은 이중기단에 삼층의 탑신을 지닌 전형적인 신라석탑 양식에 하나의 기단이 추가된 매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대의 하강에 따라 신라석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기단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탑은 별도의 장대석으로 기단을 높이거나 탑구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탑과 같이 별도의 기단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²¹⁾

최근 이 탑의 독특한 기단의 구성을 신라시대 조탑경(造塔經)으로 쓰인 『무구정경(無垢淨經)』의 영향으로 보기도 한다. 통일신라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법식에 따라 탑을 만들거나 중수할 때는 無垢淨壇을 개설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탑을 건립하기 전에 무구정단을 만들고 作壇法을 행한 뒤에 그 단 자체에 탑을 건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곡사 탑과 같이 이중 기단 아래에 우주와 탕주를 갖춘 별도의 기단을 마련하고 있는 탑의 경우는 무구정단 위에 건립된 석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²²⁾

3) 제작 연대

이 탑은 기단부를 매우 정성을 들인 것에 비교해 탑신부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으나 하층 기단부터 탑신부에 이르기까지 체감비율이 일정하다.

일반적인 석탑 기단은 상층과 하층의 2중기단 형태이나 연곡사 삼층석탑은 3중 기단을 갖추고 있다. 통일신라 말에는 봉암사 삼층석탑,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구례 화엄사 동요층석탑 등에 보이는 단층기단이나 대구 부인사 서삼층석탑, 취서사 삼층석탑 등에서 보이는 3중기단, 도피안사 삼층석탑(865년)과 같은 팔각 기단 등 다양한 기단의 석탑이 선보인다.²³⁾ 이는 9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승탑 기

21)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용철, 2013년)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 보완.

22) 신용철, 2008, 「造像經과 新羅石塔」, 『法 소리없는 가르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26~227쪽.

신용철, 2009, 「신라 불탑에 있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불교학연구회.

23) 박경식, 1994, 『통일신라 석조미술연구』, 학연문화사, 84~89쪽·94~95쪽.

단의 다양한 형태에 영향을 받아 석탑에도 기단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말의 특징이다.²⁴⁾

이 석탑은 전체적인 크기나 가느다란 비례 감각에 있어 9세기 후반 신라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별도의 기단을 추가하여 3중기단을 형성한 것은 소형화를 추구하는 신라시대 석탑의 경향을 엿볼 수 있으며²⁵⁾ 나아가 당시 『조탑경』과 탑의 외관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²⁶⁾

삼층석탑 상층기단 안에서 발견된 금동불의 연대가 고려초로 내려오는 점은 9세기 후반 양식으로 조성된 삼층석탑에 비교해 볼 때 현각선사가 활동하던 10세기 중반 경에 수리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금동불 제작연대를 이유로 탑의 제작연대를 고려초기로 내려보기도 한다. 하지만 동승탑과 동승탑비가 세워질 때인 연곡사 창건기의 유물로 판단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9세기 후반에 조성된 유물과 고려 초기의 유물들의 석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직이 치밀한 양질의 화강암을 사용한 동승탑이나 동승탑비와 비교해서 북승탑과 현각선사탑비는 다갈색의 덜 단단한 돌을 사용하여 마모가 많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석조문화재를 제작할 당시의 경제력에 따라 사용하는 석재의 질이나 석공의 기술 수준도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 삼층석탑에 사용된 조직이 치밀한 양질의 화강암이나 탑재에 표현된 정제된 솜씨는 동승탑비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연곡사 삼층석탑은 현재의 주불전인 대적광전과는 일반적인 가람배치에서 많이 벗어나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의 대적광전은 삼층석탑 제작 당시 주불전의 위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석탑과 관련된 시기의 주불전의 유구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 비록 (재)불교문화연구원 시·발굴조사(2010.11.29.~2011.1.20.)에서 대적광전 주변이 고려시대 초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찰의 주요전각이 위치하였음을 확인했다.²⁷⁾고는 하지만 오히려 대적광전 자리는 동승탑의 축대와 인접한 지리적 정황상 양대박(梁大樸)의 <燕谷東庵 憶觀師>(1580년)에 등장하는 “東庵” 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 강삼혜,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教美術研究 調查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158쪽.

25) 홍영호, 1998, 「한국 삼중기단석탑의 출현과 전개에 관한 시고」,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26) 신용철, 2008, 「造像經과 新羅石塔」, 『法 소리없는 가르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26~227쪽.

27) 『구례 연곡사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2013, (재)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연곡사, 147쪽.

4) 금동여래입상

시 대 : 고려 초기

크 기 : 전체높이 23.5cm

형 식 : 입상

재 질 : 동조

출토장소 : 삼층석탑 상층기단 안 자연 판석 위

소 장 처 : 동국대학교 박물관

① 위치 및 현황, 역사적 변천

1967년 삼층 석탑 보수 시 해체 도중 상층기단 안 자연 판석 위에서 발견되었다. 지금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불상은 팔각대좌를 갖춘 입

상으로 녹이 슬어 있어 동조여래입상이라고도 하였으나 자세히 보면 몸체 일부에 금도금 흔적이 발견된다. 푸른 녹이 전면에 퍼져 있고 파손된 곳 없이 비교적 완전한 상태이다.



연곡사 삼층석탑내 발견 금동여래입상
(동국대박물관)

② 양식적 특징

육계는 둥그렇고 이마보다 한 단 높은 머리에는 나발이 표현되지 않았다. 타원형의 상호에는 눈썹·눈·코·입의 표정이 다소 경직된 느낌을 준다. 특히 코는 주변보다 높아 오뎅하다. 볼은 둥글고 원만한 곡선을 이루고 귀는 희미한 형태의 귀 바퀴와 조금 늘어진 귀 볼이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목은 짧으며 목과 가슴 사이에 솔 같은 삼도를 표현하는 두 줄의 띠가 둘러져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앞면 중앙이 명치께까지 늘어지며 가슴에는 내의를 사선으로 받쳐 입었다. 법의는 「U」자형으로 겹쳐지면서 무릎 부근까지 연이어져 있다. 무릎 아래는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옷 주름이 발목부근에서 곡선으로 모아졌다. 이러한 옷 주름은 주변을 선으로 새겨 옷 주름 자체를 돌출시켰다.

수인은 오른 팔과 왼 팔을 가슴께까지 들어 올렸다가 오른손바닥은 정면으로 향하게 펴 보이고 왼손바닥은 아래로 내린 형태로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변형으로 보여진다. 손목 위로는 옷에 덮여 있고 옷자락이 무릎 근처까지 쳐져 있다. 발은 발가락까지 묘사되었다. 대좌는 팔각이며 상하가 구분되는 모습이다. 발받침 구실을 하는 상대는 좁은 편이며 중대는 생략하고 바로 하대로 이어진다. 하대는 팔각이며 측면에는 투조된 안상과 하면에는 2단의 괴임이 있다.

③ 제작 연대

불상은 턱이 약간 들려진 모습이며 머리에 비해 어깨가 좁고 전체적으로 경직되었다. ‘U’자형으로 겹쳐지는 법의와 우수상 좌수하 형식의 수인, 상대 하대만 갖춘 대좌의 모습에서 통일신라 금동불 양식의 잔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경직된 상호·자세·의습으로 보아 고려 초에 제작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현각선사가 활동하던 10세기 중반 경에 탑을 수리하면서 금동불을 넣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전체높이 23.5cm, 대좌높이 5cm)²⁸⁾

2. 구례 연곡사 동승탑(求禮 鰲谷寺 東僧塔)

지정별 : 국보 제53호

지정일 : 1962.12.20.

시 대 : 통일신라말(870년경)

크 기 : 높이는 323.0cm, 탑신 너비 66.5cm

형 식 : 팔각원당형

1) 위치 및 현상, 역사적 변천

대적광전에서 북동쪽으로 10m쯤 올라가는 산기슭에 위치한다. 연곡사에 있는 3기의 승탑 중 조각 솜씨가 가장 정교하다. 동승탑비와 함께 높이 150cm의 축대 위에 자리한다. 축대의 동서 북쪽 외곽에는 두 줄로 네모지게 둘러진 석축이 보이는데 이는 배수를 고려한 시설물로 여겨진다.²⁹⁾

28)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2~83쪽.

이 승탑과 같은 축대 위에 건립된 탑비(보물 제153호)는 비신과 이수의 제액에 명문이 없어 탑의 주인공을 추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승탑과 함께 2001년 표면의 보존처리가 실시되었고 이때 순서가 뒤바뀐 상륜부재를 현재와 같이 바로잡았다.³⁰⁾ 일제강점기 때 동경대학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 연구하였지만 산길로는 운반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³¹⁾ 하지만 1949년에 김창호가 쓴 <동광신문> 답사기에는 1939년경에 일본고고학자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³²⁾와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³³⁾가 찾아와 현각선사탑비를 삼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일본 京都로 옮겨가려고 했다는 내용만을 기록했다. 현각선사탑비가 동승탑으로 京都가 동경으로 왜곡되었을 뿐 전반적인 이야기 줄거리는 유사하다. 오히려 산길로 운반이 불가능한 것은 여러 개의 작은 규모로 해체가 가능한 동승탑보다는 귀부와 이수가 커다랗게 구성된 현각선사탑비일 가능성이 높다.

탑신은 몸돌에 새긴 문비를 비롯하여 지붕 위에 표현된 기왓골, 내림마루, 암막새 문양, 옥개석 하면에 모각된 연목과 부연 등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양식을 잘 따르고 있다. 상륜부는 결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³⁴⁾에 따라 2001년에 다시 조립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소요대사탑의 한 돌로 만들어진 상륜부를 참조하여 봉황을 보륜 위에 복원하였고 망실된 보주는 사암질의 새로운 부재로 제작·보충하였다.³⁵⁾ 2012년(2012. 04. 12.~2012. 09. 08.)에는 연곡사 동승탑에 대한 보존처리(세척 등)를 실시했다.

2) 양식적 특징

네모난 지대석 위에 기단부와 탑신부·상륜부를 쌓은 전형적인 팔각당형의 승탑이다. 상륜의 봉황의 머리 부분만 훼손되었을 뿐 대부분 파손이나 결실된 부분 없이 완전하다. 탑에 새겨진 부조상과 팔각당 승탑의 건축적 표현은 기교가 빼어날 뿐더러 조각 솜씨도 섬세하다.

29)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3쪽.

30) <구례 연곡사 동승탑>(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용철, 2013년)

31) <연곡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위석, 1996년)

32) 충독부 고적 조사과 기수

33) 동경제국대 건축과 교수

34) 蘇在龜, 1999, 「新羅下代 石造美術樣式 研究方法論」, 『美術資料』 62호, 41~43쪽.

35) 김사덕 외, 2002, 「연곡사 북부도·동부도 긴급보존처리 및 원형복원」, 『保存科學研究』, 제2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169~170쪽.

기단부는 3매의 돌로 구성되었다. 지대석과 하대석이 한 돌로 되어 있는데 하대1석에는 2단의 운룡문, 하대2석에는 굽은 안상 테두리를 두르고 사자상을 고부조로 조각하였다. 중대석 받침은 3단의 각지게 다듬었다. 중대석 받침 윗면에는 각지게 깎인 3단의 괴임대를 마련하여 중대석을 받쳤다. 중대석은 낮은 편이며 각 8면에는 네모진 안상 속에 무기를 들고 다리를 구부린 팔부신중이 낮게 돌을새김으로 갖가지 무술 동작을 취하고 있다. 상대석은 2단으로 새겨진 연판 안에 화문을 표현해놓았다. 측면에는 홑꽃이 앞뒤로 겹쳐진 모습의 연꽃이 위로 벌어진 채 돌을새김되었다. 연꽃은 상하 2열에 16판씩, 꽃잎 안을 다시 꽃씨를 장식하였다. 윗면의 탑신 받침은 모서리마다 소반상 다리 같이 중간에 둥근 마디가 있는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자세가 다른 가릉빈가 1구씩을 높은 부조로 돌을새김하였다.

탑신 받침 각 8면에는 한 단 위에 굽은 동자주로 구획을 나누고 다시 한 단 위에 안상을 두른 후 그 안에 가릉빈가³⁶⁾의 모습을 돌을새김하였다. 저마다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가릉빈가는 자세와 표정이 제각기 다르며 생동감이 넘친다.

36) 가릉빈가(迦陵頻伽): 부처의 소리를 전하는 모음(妙音)의 새. 고승의 부도나 와당, 그리고 불단 등에서 새의 몸에, 사람 머리를 한 인두조신(人頭鳥身)의 새를 만날 수 있다. 범어로 카라빈카(Kalavinka)라고 하는 이 상상의 새가 바로 가릉빈가(迦陵頻伽)인데, 히말라야에 있는 설산(雪山)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자태는 물론이고 소리 또한 묘하고 아름다워 모음조(妙音鳥), 미음조(美音鳥) 또는 옥조(玉鳥)라고 한다. 극락정토에 사는 새라고 하여 극락조라 부르기도 한다. 가릉빈가는 어떤 상황이나 장소를 미화하고 이상화하려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된다. 불교 경전에 의하면 고대 중인도 교살라국 사위성(舍衛城) 남쪽의 기원정사(祇園精舍)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날에 가릉빈가가 내려와 춤을 추었고, 모음천(妙音天)이 가릉빈무(迦陵頻舞)라고 하는 무곡(舞曲)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불전이나 부도를 장식하는 소재로 가릉빈가가 자리 잡게 되었다.

가릉빈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리와 몸체와 날개는 새의 형상이고, 얼굴과 팔은 사람의 모습이다. 몸체는 깃털로 덮여 있으며, 깃털이 달린 화관을 쓴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기도 한다.

장식문양으로 가릉빈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남북국시대) 이후이다. 가릉빈가문양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은 고승대덕(高僧大德)의 부도인데, 대표적으로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과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그리고 구례 연곡사의 동·북부도가 유명하다.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에는 상단 괴임대 8면에 각각 날개를 펼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가릉빈가가 새겨져 있는데, 다리와 날개의 표현이 섬세하고 자세가 유연하다. 쌍봉사 철감선사탑에는 상대석 위에 8면의 안상(眼象)을 가진 탑신 괴임대가 있고, 각 안상 안에 주악상과 가릉빈가를 양각으로 표현하였다. 가릉빈가는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는 자세이며 특히 날개의 깃털이 뚜렷하다. 어린애 같은 귀여운 모습이 담겨 있으며 온화하고 정겨운 느낌이다.

연곡사 북부도의 가릉빈가는 8면의 탑신 괴임대 각 면에 1구씩 새겨져 있는데, 특히 세 개의 발가락 표현이 양중맞다. 이밖에 같은 경내에 있는 동부도의 가릉빈가도 볼만하다.[가릉빈가 - 부처의 소리를 전하는 모음(妙音)의 새 (허균,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2000. 5. 01.)



동승탑 옛 사진(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36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동승탑 현재 사진

탑신 받침대 위에는 각지게 다듬은 1단 위에 연판을 새긴 1단을 놓고 탑신을 받치고 있다. 팔각 탑신은 앞뒷면에 문비, 동서면에 향로, 동남서북면 간방위에 사천왕을 새겼다. 사천왕상은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같이 두 구씩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투구나 어깨에 두른 피건, 천의의 휘날림, 군의 자락이 묶여서 내려오는 모습, 암좌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조각 수법은 전혀 달라서 사실적인 쌍봉사 철감선사 탑 사천왕상에 비해 동부도 사천왕상은 평면적이고 문양화 된 듯하다. 또한 사천왕상 대좌도 탑신의 구획 안쪽으로 들어와 표현되어 있으며 사천왕상 지물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북방 다문천상이 탑을 들고 있지 않다.³⁷⁾

옥개석은 목조건축의 지붕 모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이층의 연목과 기왓골 뿐만 아니라 처마 끝에는 막새까지 표현했다. 지붕 아랫면에는 구름문양과 비천상을 돌을새김 하였다. 모든 지붕마루 끝 측면에는 풍탁을 걸어두었던 두 개의 구

37) 봉암사 지증대사탑(883년)과 실상사 증각대사탑(9세기 후반), 수철화상탑(893년)에서도 지물에 탑이 생략되어 있는데 탑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이 시기 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강삼혜, 2002, 『나말여초 僧塔 塔身 神將像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62쪽·88쪽.)

멍이 있다. 그 윗부분에는 지금은 깨어졌으나 잡상 같은 것을 얹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³⁸⁾ 상륜부는 꽃 모양의 양화 위로 연꽃문양의 보륜과 사방으로 날개를 활짝 편 봉황이 조각된 보개 및 화염보주를 얹었다.³⁹⁾ 네 마리 봉황의 머리는 모두 파손되었고 뒤쪽으로 광배 같은 조각이 붙어 있다.

	북방 다문천왕상 (북동면)	서방 광목천왕상 (서북면)	남방 증장천왕상 (남서면)	동방 지국천왕상 (동남면)
쌍봉사 철감선사탑				
연곡사 동부도				
연곡사 북부도				

〈삽도 1〉 승탑 탑신에 표현된 사천왕상도

(文明大, 新羅四天王像의 연구, 佛教美術 5에서 전재)

38)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3~84쪽.

39) <구례 연곡사 동승탑>(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용철, 2013년).



〈탁본 1〉 동승탑·북승탑 주요 문양

3) 제작 연대

동승탑은 선종의 전래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나말여초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뽐내던 승탑 가운데 하나이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861년경)과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경)과 함께 이 시기를 대표하는 승탑이다. 연곡사 동승탑(870년경)과 북승탑(979년경)은 나말여초의 선종사찰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례처럼 하대신라의 개창조와 고려 초기 중창조의 승탑이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례는 곡성 태안사 적인혜철 승탑 (861년경)과 광자윤다 승탑(945년경)이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며 연곡사 동승탑(870년경)과 북승탑(979년경)을 거쳐 남원 실상사 증각홍척 승탑(9세기 후반)과 수철 승탑(893년경), 장흥 보림사 보조체중 승탑(880년)과 보림사 동승탑(나말여초), 문경 봉암사 지증도현 승탑(883년)과 정진궁양 승탑(956년~965년), 여주 고달사 원종 승탑(977년)과 고달사지 승탑(원강 승탑 추정, 고려 초기 10세기)으로 널리 퍼져 간다.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승탑보다 기단부가 높고 세부적인 조각수법은 치밀하다. 연곡사에 현재 남아 있는 불적 가운데에서 가장 연대가 빠른 이 동승탑은 통일신라말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지리산 주변지역에 남아 있는 이 시기의 승탑

들, 예를 들자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 승탑(861년)·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868년)·남원 실상사 증각대사 승탑(9세기 후반)·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승탑(880년)·하동 쌍계사 승탑(885년)·남원 실상사 수철화상 승탑(893년)들과 비교해 보면 870년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승탑들이 정형에서 많이 벗어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적어도 연곡사의 동승탑은 양식상 870년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동승탑비는 동승탑이 세워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 동승탑의 축대는 막돌 허튼층으로 쌓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삼층석탑 북동쪽에서 노출된 축대와 분위기가 비슷하여 주목된다.⁴⁰⁾

기본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팔각당형 승탑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대석에 팔부신중을 새긴 점, 탑신괴임에 동자주형태의 기둥을 세워 목조건축 양식을 나타낸 점, 탑신부에 향로를 새긴 점 등은 이 승탑만의 특징이다. 또한 상륜부 보개에 네 마리의 봉황을 배치하여 극락정토의 상징을 나타낸 것은 다른 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탑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전 원주 흥법사지 여거화상탑(844년),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로 완성된 통일신라 팔각원당형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수작이다. 또한 사천왕상·향로·목조건축의 요소 등이 정교하게 표현되었고 기단과 탑신의 비례도 적당하여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⁴¹⁾

탑신의 사천왕상이나 기단부 문양 구성 등 전체적으로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을 계승했으나 사실적인 면보다 좀 더 장식적인 수법이 많이 도입된 점으로 미루어 후대의 탑으로 생각된다.⁴²⁾

동승탑의 조성 시기에 대한 판단에 동승탑 축대 축조방식이 삼층석탑 주변의 막돌허튼층 쌓기의 축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점도 참고된다. 지리산 주변지역에 남아 있는 이 시기의 승탑들과 비교해 볼 때 870년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승탑들이 정형에서 많이 벗어나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한 양식상의 격차를 보이는 동승탑비 만큼의 현각선사탑비나 북승탑의 건립시기인 979년경으로까지 늦춰 볼 수는 없다.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의 건립시기와 비교해 볼 때 870년은 너무 가까운 시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에 비해 표현 양식의 경

40)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3~87쪽.

41) <구례 연곡사 동승탑>(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용철, 2013년)

42) 강삼혜,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教美術研究 調査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144쪽.

직성이나 도안화된 요소 등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조화로운 구도와 세장한 비례미를 완성한 점 등에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그 제작 시기는 9세기 후반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구례 연곡사 동승탑비(求禮 薦谷寺 東僧塔碑)

지정별 : 보물 제153호

지정일 : 1963.01.21.

시 대 : 9세기 후반경

크 기 : 높이 198.5cm

형 식 : 거북 대좌, 삼산형(三山形) 이수

1) 위치 및 현상, 역사적 변천

동승탑 맞은편 서쪽에 자리한다. 동승탑과 함께 높이 150cm의 축대 위에 놓여 있다. 현재 비신(碑身) 조각조각 찾을 길 없고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만이 남아 전한다. 탑비의 주인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연곡사 창건주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로 생각된다.

1975년에 발행된 『全南文化財圖錄』⁴³⁾에 귀부의 향 우측에 이수가 서로 분리된 사진이 실렸다. 하지만 1936년에 촬영된 조선총독부유리건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에는 귀부 위에 이수가 지금처럼 올려져 있었다. 이때 정면 향 우측에도 화염보주로 보이는 파편이 엮어져 있었고 귀부 머리도 절단되어 떨어져 나간 부분 앞에 받쳐 놓았다.

축대의 동서 북쪽 외곽에는 두 줄로 네모지게 둘러진 정연한 석축이 보이는데 이는 배수를 고려한 시설물로 여겨진다.⁴⁴⁾

2) 양식적 특징

귀부는 지대석과 한 돌이며 네 다리를 사방으로 쭉 뻗고 있어 마치 납작하게 엮드린 듯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귀부의 등 중앙에는 장방형의 비좌를 마련하였

43) 『全南文化財圖錄』(國家指定 및 全南地方文化財圖版과 解説), 1975, 社團法人 韓國文化財保護協會 全羅南道支部, 61쪽.

44)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3쪽.



동송탑비 옛 사진(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36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동송탑비 현재 사진

다. 비좌의 네 측면에는 구름무늬를 고부조로 장식하였다. 그 윗면 주위로는 단을 두르고 복판단엽 연꽃잎을 새긴 복련을 드리웠다. 비좌의 측면에 고부조로 구름무늬를 새기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나 태안사 적인선사탑비(861년경)·쌍봉사 철감선사탑비(868년)에서부터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다. 발톱의 표현이나 등뼈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 등은 매우 사실적이다. 거북의 머리는 용의 머리 모양이며 얼굴 옆면에 눈을 표현하였다. 가슴과 목에는 주름이 있다.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있는 귀두(龜頭)는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붙여놓은 것이다.

귀부는 비록 용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통일신라시대 귀부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거북의 등 문양 또한 통일신라시대와는 다르게 6각의 갑문(甲文)이 아니고 파상곡선(波狀曲線)으로 이루어진 새의 날개깃 모양[조익형(鳥羽形)무늬]으로 조각되어 있다. 하지만 날개 안쪽으로는 6각의 귀갑문을 표현된 전형적인 귀부의 모습이 날개가 덮이지 않은 등 부분에서 드러난다. 더구나 비좌의 구름무늬와 연화문, 괴임과 받침을 치석한 수법, 왼 앞발과 뒷발을 물속에서 박차고 오른 앞발을 살짝 들어 전진하려는 수영 자세 등 여러 부분에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868년)의 솜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귀부 위에 얹혀 있는 삼산형(三山形)의 이수 역시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은 제액을 중심으로 구름 속에 엉켜 있는 두 마리 용을 새겼다. 이수 뒷면에도 세 마리

용이 표현되어 있다. 이수 꼭대기에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꽃에 휩싸인 보주[火焰寶珠: 위가 뾰족하고 좌우 양쪽과 위에서 불길 이 타오르고 있는 형상의 구슬]가 3개 솟아 있었으나 중앙부만 남아 있고 좌우의 것은 깨져 없어진 상태이다. 모두 원석에 그대로 조각한 것이다. 1936년에 촬영된 조선총독부유리건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에는 정면 향 우측에 화염보주로 보이는 파편이 올려 져 있었다. 이수 앞면에 마련된 가로 32cm, 세로 38cm의 탑 액은 만들다 만 듯 테두리가 형성하고 내부에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다.

규모 면에서는 보다 작고 아담해지고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동승탑비는 통일신라시대와는 다른 고려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양식으로 판단된다.

동승탑비의 거북이는 왼 앞발과 뒷발을 물속에서 박차고 오른 앞발을 살짝 들어 전진하려는 거북이의 수영 자세가 인상적이다.

지리산 주변 이 시기의 일부 승탑비들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비(861년경)·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868년경)에서는 오른 앞발은 들고 가슴 아래에는 물결이 표현되어 들어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는 당시 사회에 등장한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의 진취성을 반영하려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담았다. 이후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비(9세기 중엽)·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887년)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동승탑과 마찬가지로 이 탑비 역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868년)를 계승하여 이수의 화염형 보주 장식이나 비좌와 이수의 구름무늬, 비좌에 연화문을 장식하고 괴임과 받침을 치석한 수법 등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⁴⁵⁾ 이러한 특징은 물결 표현이나 왼 앞발과 뒷발을 물속에서 박차고 오른 앞발을 살짝 들어 전진하려는 역동적인 거북이의 수영 자세에도 쌍봉사 철감선사탑비(868년)의 솜씨를 이어받는다.

거북이의 목과 가슴 아래에는 물 위를 헤치며 나아갈 때 생기는 물결을 표현하였다. 태안사 적인선사탑비(861년경)와 쌍봉사 철감선사탑비(868년)에서는 네 방향 모두에 입체감 있는 고부조의 생동감 넘치는 물결이 등장한데 비해 연곡사 동승탑비와 현각선사탑비는 앞면에만 표현되었다. 그나마 현각선사탑비는 낮은 부조이고 형태만 보이는데 비해 동승탑비는 쌍봉사 철감선사탑비처럼은 아니지만 생동감과 입체감 있게 묘사하였다.

45) 朴相俊, 2002, 『新羅下代 塔碑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60쪽.
엄기표,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고』, 학연문화사, 294쪽.

더구나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거북이의 네 발가락이나 머리 표현에 비해 동승탑비와 현각선사탑비의 거북이는 물결 표현처럼 점차적으로 생동감을 잃어간다.

3) 제작 연대

동승탑비는 크기에서 보다 작고 아담해지고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한 면에서 동승탑이 조성된 870년대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여진다.⁴⁶⁾ 그 시기는 태안사 적인선사탑비(861년경)와 쌍봉사 철감선사탑비(868년)의 솜씨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이 발견된다.⁴⁷⁾

하지만 동승탑비는 동승탑과 삼층석탑이 세워질 때인 9세기 후반경 연곡사 창건기의 유물로 이해해야 한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연곡사 경내의 9세기 후반에 조성된 유물과 고려 초기의 유물들의 석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삼산형 이수와 운용문을 구현한 세련된 이수에 비해 날개 달린 거북이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표현의 생경함이 일부 양식적 퇴보로 판단해 나말여초로 그 시기 폭을 넓게 잡으려는 경향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일부 어색한 표현은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서투름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삼산형 이수와 운용문을 구현한 세련된 이수뿐만 아니라 거북이 낮은 자세나 날개 아래에 언뜻 보이는 육각의 귀갑, 용두화 되지 않은 고졸한 귀부뿔, 귀두 상단의 길쭉한 돌기, 발가락과 발톱에 표현된 세련된 조형미, 가늘고 긴 목에는 유연한 주름, 물결을 해치고 나가는 거북이의 속성을 반영한 물결 무늬 등의 표현은 결코 현각선사탑비와 북승탑의 건립 시기인 고려 초기(979년경)로 내려 볼 수 없는 요소들이다.

더구나 동승탑비에 사용된 조직이 치밀한 양질의 화강암과 탑재를 다루는 정제된 솜씨는 삼층석탑과 동승탑비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연곡사 동승탑과 탑비는 철감선사승탑과 탑비와 양식적 측면이나 석질, 치석수법 등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여 동일집단이나 멀지 않은 그 후에 석공에 의해 조성된 것만은 부정할 수

46)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93쪽.

47) 문장 내용 중에 그러한 철감선사탑비의 양식과 치석수법 등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면에서도 제작 시기를 나말여초로 추정했다.(강삼혜,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教美術研究 調査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144쪽.)

없을 것 같다. 삼층석탑과 동승탑을 조성한 연곡사 창건기인 870년대는 아닐지라도 조금은 늦은 당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승탑보다 탑비가 늦게 세워지는 속성도 있고 동승탑비편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870년대에 동승탑과 함께 건립되지 않은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동승탑비의 귀부는 적갈색이고 이수에는 암갈색으로 돌의 재질도 다르며 귀부의 거북이 머리는 화재 시 불에 튀어 깨진 것을 다시 붙였다.⁴⁸⁾

4) 동승탑비 파손에 대한 고증

동승탑비의 파손 경위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1668년에 이우가 연대순으로 엮은 탁본첩책인 『大東金石書』에 실려 있지 않아 혹 광양 옥룡사의 도선국사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실의 허가를 얻지 못한 백비이거나 아예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석을 세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하지만 1992년 시굴조사 결과 동승탑·비전 남쪽 시굴갱의 지표에서 10여cm 내외의 글씨 없는 비 10여 편이 수습되었다. 현각선사탑비 주변의 비편이나 대적광전 서쪽 바로 옆(B 건물지)의 지표에서 수습된 비편과 질감은 같으나 약간 더 무르다.⁴⁹⁾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연곡사 비편⁵⁰⁾과 1993년 전남대학교 박물관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비편들도 비교적 비석 재질도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1992년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글씨 없는 비편은 동승탑비편일지 현각선사탑비편일지에 대해서는 매장환경에 따른 석질의 변화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일부 잔편만으로는 그 판단을 유보한다.

5) 동승탑과 동승탑비 주인에 대한 고증

동승탑과 동승탑비의 주인에 대해서 그동안 연기조사라거나 선각국사 도선 또는 연기조사와 선각국사가 동일인이라는 설까지도 전해 온다. 「智異山 鰲谷寺 事蹟記」(1924년)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이 전한다. 그것은 “서기 544년 신라 진흥왕 때 인도스님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창건하였다. ... 사리탑을 2좌 세웠는데 하나는 원탑(願塔)이 되고 하나는 그 어머니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 된다. 후인들이 상탑

48)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93쪽.

49) 黃鏡均, 1993, 「연곡사의 시굴조사」,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50쪽.

50) 『구례 연곡사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2013, (재)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연곡사, 147쪽.

(위쪽)을 어머니 탑이라 하고 하탑(아래쪽)을 연기조사탑이라 말한다. 탑 형체는 팔각 오층 와즙 형태로 여래 및 보살상이다. 십이지신에 연꽃등 조각이 공교롭고 지극히 뻑뻑이 돌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짝(匹儔)없는 진탑(眞塔)이다.”이다.⁵¹⁾

더구나 동승탑이 도선국사 승탑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 근거로 도선국사(827년~898년)가 지리산 토굴에 살면서 연기를 피운다 하여 또 다른 이름의 煙起이며 동승탑비 귀부에 등장한 날개는 화엄사와 연곡사를 창건한 ‘鷲’이라는 거북이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鷲起’를 상징한다는 점을 들었다.⁵²⁾ ‘鷲’의 형상은 머리는 용이고 몸뚱이는 거북이며 날개가 달려있어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신비의 동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승탑은 적어도 통일신라 말기인 870년경의 작품이고 북승탑은 고려 초기인 979년경의 조성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주장들은 무언가 혼란스럽다. 다만 동승탑을 도선국사 승탑으로 볼 수 있는냐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접근해 보자면 도선국사(827년~898년)의 활동시기와 사지발굴의 고고학적인 유물도 어느 정도 일치하며 통일신라말 즉 9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는 동승탑이나 삼층석탑의 편년도 이 시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연기라는 스님이 화엄사를 세웠고 그 시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인조 14년(1636년)에 쓰인 「華嚴寺事蹟」을 비롯한 다른 사적기들은 신라 진흥왕 5년(544년) 인도 승려 연기가 화엄사를 세웠다고 했다. 심지어 연기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연(鷲 - 강희자전 “鷲은 남방에 사는 동물로서 흡사 거북과 같고 이마에 외뿔이 달려 있으며 날개가 있어서 능히 공중을 날기도 하고 육지와 바다에 서식한다.”)을 타고 인도에서 와서 화엄사를 지었기 때문에 연기라고 한다는 설화까지도 전해진다.

더구나 화엄사를 鷲起(동부도비의 귀부가 鷲)에 의해 창건되고 緣起(의상조사)에 의해 중창되었으며 煙起(도선국사 - 지리산 토굴에 살면서 연기를 피운다 하여...)에 의해 3창 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청계(靑溪) 양대박(梁大樸)이 지은 <燕谷東庵 憶觀師>(1580년)에 ‘東庵’의 옛 비석의 주인을 ‘觀師’라 지칭하였다.⁵³⁾ 가을 풀이 무성한

51) 曼宇 鄭秉憲 집록, 1924년 11월, 「附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

52) 1990년대 이후에 사찰 측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나 정병헌의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53) 梁大樸, <燕谷東庵 憶觀師>, 『靑溪集』卷1, 文集叢刊 53, 527쪽.(秋草禪庭訪古碑 東庵深處憶觀師 殘書剝落苔錢厚 舊迹荒涼石塔欹 蘿月照寒人去後 桂花飛盡客來時 無端解入三清路 獨倚青藜有所思).

어느 날 연곡사에 올라가 ‘東庵’의 옛 비석을 찾았는데 남은 글자가 벗겨 떨어져 고 이끼가 가득한 古碑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東庵의 古碑’는 여러 정황상 동승탑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東庵’의 古碑를 보면서 추모한 ‘觀師’도 ‘道誥國師’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신까지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다만 글자가 떨어지고 이끼가 가득 끼어 옛 자취만 황량하게 남아 있었다고 묘사한 부분에 와서는 연곡사 서쪽에 건립된 현각선사탑비와는 상당히 구별된다. 그것은 이우가 88년 뒤에 펴낸 탁본 서첩인 『大東金石書』(1668년)에 실린 현각선사비의 탁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정황상으로도 동승탑인 것만은 분명하다. 발굴 조사 때 축대 아래에서 발견된 글씨 없는 비 10여 편은 왕실의 허가를 얻지 못한 백비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玄覺禪師碑’만 언급하고 있어 16세기까지 ‘동승탑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동승탑비’의 글씨 있는 비석이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양대박의 ‘東庵의 觀師 古碑’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스럽다.

『亂中雜錄』에 정유재란 때인 1598년(선조 31) 4월 10일 일본군이 薰谷寺에 들어와 살육을 자행하고 불을 지르는 등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였다는 기록⁵⁴⁾으로 보아 주불전과 근접한 동승탑비가 화재에 상당한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86년에 丁時翰이 기록한 『山中日記』에는 “연곡사(燕谷寺)에 가서 비전에 있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문을 보았는데 빗돌이 깨진 지 지금 7년에 되었다.”고 묘사하였다.⁵⁵⁾ 1679년에 깨졌다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석들은 현각선사(玄覺禪師)의 오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비전에 가서 비문을 보았다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현각선사비의 상태가 양호한 탁본 모습이 실린 『大東金石書』(1668년)의 존재로 미루어 11년 뒤에 파손되었을 정황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현각선사(玄覺禪師)의 선각선사(禪覺禪師) 오독은 그동안 연곡사 동승탑을 도선(선각국사)의 묘탑으로 인식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나 『山中日記』(1686년)에서 오류의 최초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착오는 현각선사탑비 이수 전액에 새겨진 “玄覺禪師碑銘” 글씨 중 “玄”부분이 희미해서 생긴 오해로 생각된다.

다만 1580년에 <燕谷東庵 憶觀師>에 ‘東庵’의 옛 비석의 주인을 ‘觀師’라 묘사한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자료이다. 신라 말 현강왕대에 道誥이 화엄사 도량을 넓혀 총림대도량을 열었다. 거리상으로 가까운 동리산문 대안사(지금의 곡성 태안

54) 『亂中雜錄』 3(『退耕堂全書』 2, 韓國寺刹全書(上), 再引用).

55) 정시한(丁時翰) 산중일기(山中日記)(上)[1686년(숙종 12)~1688년(숙종 14)].

사)는 동리산문의 방계인 도선의 옥룡사파가 왕건과 연결되기 이전에는 후백제 견훤과 밀착되었고 명종 2년(1172년) 도선의 비를 세우는 일에 화엄사 僧衆들이 동원되는 일도 있어 연곡사와 도선의 관련성을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1750년대에 이언근(李彦根: 1697-1764)이 기록한 『遊方丈錄』(1753, 1756)에는 “조식 후에 도선의 비가 서편 전각 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았다. 비는 이미 넘어지고 부서져 겨우 글자 모양을 상고할 수 있었다.”⁵⁶⁾고 한다. 비의 소재가 서편 전각 뒤에 있고 글자 모양을 겨우 상고할 수 있다고 묘사한 점으로 미루어 현각선사비가 분명하다. 이는 현각선사탑비의 이수에 ‘ㄱ覺王師碑銘’의 전액 중 ‘ㄱ’ 글자가 희미해서 발생한 오해로 이해된다.

현각선사탑비를 의미하고 이수에 ‘ㄱ覺王師碑銘’의 전액 중 ‘ㄱ’ 글자가 희미해서 발생한 일로 이해된다. 『산중일기(山中日記)』(1686년 7월 27일과 30일)에서 보았다는 비전의 현각선사(玄覺禪師) 비문을 선각선사(禪覺禪師) 비문으로 잘 못 이해한 오류를 무비판적으로 70여 년간 그대로 계승된 사례로 여겨진다.

하지만 『鳳城誌』(1800년경)에 등장하는 현각선사비 파손 기록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 “고려학사 왕용이 지은 현각선사비가 왜란 후에 문자의 획이 박락되었다가 지금(1872년경)에 이르러 마침내 깨뜨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연곡사의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고 한다.”⁵⁷⁾ 이러한 묘사의 혼란은 아마도 현각선사탑비 귀부가 파손된 상태로 촬영된 1936년 사진(조선총독부 흑백유리건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비신의 일부만 깨지는 것과 비석 전체가 넘어져 귀부까지 파손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혼란으로 이해된다.

丁時翰의 『山中日記』(1686년)에서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문을 보았는데 빗돌이 깨진 지 지금 7년에 되었다.”는 것은 탑비 전체의 도괴가 아니고 빗돌 일부

56) 이언근(李彦根 1697-1764): 자는 회보(晦甫), 호는 만촌(晩村), 본관은 광산. 광산에서 출생하여 중년 이후 선향인 남평에 은거하여 평생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였다. 당시 호남에서 문명을 떨쳤고, 시문집으로 《만촌집(晩村集)》을 남겼다.

그의 『유방장록(遊方丈錄)』은 2차례의 지리산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사실 첫 지리산 나들이는 지리산 유람이라기보다는 지리산의 인근 고을을 스쳐간 것일 뿐이다. 즉 1753년 「남원 - 운봉 - 소년대(*점필재의 하봉 인근 소년대가 아님) - 함양 엄천사 - 산청 환아정 - 단성 - 진주 남강 축석루 - 하동 - 악양 - 화개」를 지나갔다.

두 번째, 1756년의 여정은 이렇다. 「집 - 창평 - 옥과 - 곡성 - 남원 - 화엄사 - 구만촌 - 대수천(한수내) - 모가령(목아재) - 연곡사 - 당치 - 칠불사 - 삼신동 각자바위, 능파교터 - 신흥사 - 세이암 - (국사암) - 환학암 - 불일암[청학봉(향로봉), 불일폭포] - 쌍계사 - 화개 - 대수천 - 보전촌 - 귀가」

57) 『鳳城誌』(1800년경) 佛宇條. / 『湖南邑誌』 제3책, 1872년경, 求禮 佛宇條.

파손으로 추정된다. 李彦根의 『遊方丈錄』(1753, 1756)에서 “비는 이미 넘어지고 부서져 겨우 글자 모양을 상고할 수 있었다.”라고 묘사한 부분은 말 그대로 비 전체의 도괴를 설명했지만 비신의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임도 아울러 담고 있다. 위 둘의 자료는 모두 동승탑비가 아니라 현각선사탑비를 다루는 것이 분명하다.

노산 이은상의 1938년에 지리산을 탐험하며 남긴 <지리산탐험기> <20. 燕谷寺의 밤비>에 의하면 동부도를 ‘연기원탑(緣起願塔)’이라 불려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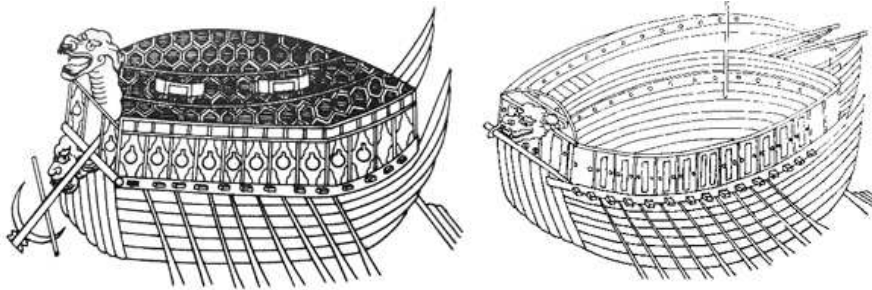
6) 동승탑비의 거북이는 날아다닐 수 있는 연(鰲)을 형상화한 거북선의 원형

동승탑비는 귀부의 몸통을 거의 다 덮을 만큼 커다란 양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인 특징이다.⁵⁸⁾ 연기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연(鰲)’⁵⁹⁾을 타고 인도에서 와서 화엄사를 지었기 때문에 연기라고 한다는 설화까지도 전해진다. 연곡사 승탑비 귀부는 몸통은 거북이인데 등에 귀갑문양과 함께 새의 날개가 달려있다. 화엄사와 연곡사 창건설화에 의하면 창건주 연기조사가 인도에서 ‘연(鰲)’을 타고 지리산에 와서 <화엄경>을 설했다고 한다. 이때 연기조사가 타고 온 ‘연(鰲)’은 육지와 바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로, 용의 머리에 몸통은 날개가 있는 거북으로 오늘의 연곡사 승탑비 귀부와 같은 것이다. 이 귀부가 거북선의 원형이라는 이야기는 임란 당시 의승 수군이 활동했던 지리산 화엄사와 여수 흥국사를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연기스님은 연(鰲)을 타고 화엄사와 연곡사를 날아다녔다고도 한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옆에는 항상 자운스님이 부장으로 활약하며 함께 싸움에 임했다. 하루는 자운스님이 ‘연기조사가 타고 온 연을 바다에 띄우면 일본 수군이 쉽게 물러갈 것’으로 생각했다. 본래 일본은 해양국가로 바닷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용을 상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운스님은 조선 수군의 배를 용의 형상으로 만들면 일본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싸우기보다 도망갈 것으로 여겨 충무공에게 거북선을 제안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거북선은 조선 태종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귀선(龜船)으로 불리던 거북선은 시대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일반적으로 임란 당시 해전에서 활약했던 거북선은 나주출신 나대용 장군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라좌수영 소속 거북선과 경상우수

58) 나말여초기에 날개가 표현된 귀부로는 無染(800~888년)이 주석했던 충남 보령 성주사의 성주사비가 있다. 이 탑비는 찬술자인 金立之의 활동 연대와 최치원이 찬한 「대당혜화상탑비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85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梁承律, 1988, 「金立之의 聖主寺碑」, 『古代研究』 6. ; 朴淳發, 『聖住寺』, 保寧市·충남대학교 박물관, 593~597쪽.)

59) 강희자전: ‘鰲’은 남방에 사는 동물로서 흡사 거북과 같고 이마에 외뿔이 달려있으며 날개가 있어서 능히 공중을 날기도 하고 육지와 바다에 서식한다.

영의 거북선은 용머리가 약간 달랐다고 한다. 전라좌수영 거북선이 좀 더 불교의 호법적 의미가 있었다고 전한다. 자운스님이 활약한 여수 홍국사는 전라좌수영 지역으로 스님이 거북선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신빙성을 더해준다.⁶⁰⁾



〈삽도 2〉 전라좌수영 거북선(왼쪽)과 통제영 거북선(오른쪽)

4. 구례 연곡사 북승탑(求禮 鰲谷寺 北僧塔)

지정별 : 국보 제54호

지정일 : 1962.12.20.

시 대 : 고려 초기(현각선사탑비 건립 979년 이전)

크 기 : 높이는 336cm

형 식 : 팔각원당형

1) 위치 및 현상, 역사적 변천

동승탑에서 북쪽으로 150m쯤 거리의 가파른 산자락에 터를 닦아 건립했다. 이 승탑 앞뒤에는 축대를 쌓았는데 앞은 1.4m정도의 높이이고 뒤편 산기슭에는 2.3m 정도의 높이이다. 그 사이에 가로 6m, 세로 10m의 평지가 마련되어 중앙에 승탑을 안치하였다. 뒤편의 축대 아래와 좌우측면에는 배수시설을 위해 작은 석축을 쌓았다. 2015년 10월경에 연곡사 북승탑 주변 석축보수공사를 통해 새로운 석축과 진입 계단을 쌓아 놓아 옛 석축의 현상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북승탑은 2001년 3월 초 도굴범들에 의해 도괴되었다가 복원되었는데 이때 전면(全面)에 부착되어있던 이끼를 제거하였고 상륜부 결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⁶¹⁾

60) 이준엽, 2014.08.21., “거북선 원형, 연곡사에 가면 볼 수 있다”, 불교신문.

61) 蘇在龜, 1999, 「新羅下代 石造美術樣式 研究方法論」, 『美術資料』 62호, 41~43쪽.

에 따라 한 돌로 조성된 소요대사탑 상륜부를 참조하여 봉황이 보륜 위에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⁶²⁾

2) 양식적 특징

북승탑은 동승탑을 모방하여 제작한 탑으로 전체적인 구성이 동승탑과 유사하나 하대석은 불상 대좌와 같이 복련으로 마련하여 동승탑과는 다르다. 동승탑에 서는 이 부분에 고부조로 사자를 표현하였다.

북승탑은 하나의 암일로 구성된 동승탑과는 달리 두 종류로 암일로 구성되었다. 8각의 지대석 받침돌은 동승탑 석질처럼 검고 단단한 반면 하대석 위로부터 상륜부까지 붉은색을 띤 무른 편이다. 하지만 지대석 받침돌에 새겨진 운룡문은 동승탑의 솜씨와는 구별된다.

전형적인 팔각당형 승탑이다. 상륜의 일부가 결실되었다가 수리 때 추가되었다. 동승탑과 마찬가지로 한 장의 돌로 된 네모난 지대석 위에 기단부와 탑신부·상륜부를 차례로 쌓은 일반형이다. 방형 지대석 위에 놓인 하대1석에는 치밀하게 운룡문을 새기고 하대2석에는 복련의 연꽃을 조각하였다. 하대석 팔각 모퉁이마다 귀꽃이 피어나고 있는데 이는 불상 대좌 형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인근에 위치한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945~950년)과 비교된다. 중대석 각 면에는 안상 안에 무기를 들고 있는 팔부신중을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2단의 양면으로 표현되었으며 동승탑과 마찬가지로 화문을 새겼다. 상대석은 상하 2층의 연꽃을 총 16엽으로, 연꽃잎에는 다시 꽃무늬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⁶³⁾

탑신 받침은 동승탑과 마찬가지로 한 단 위에 굽은 동자주로 구획을 나누고 다시 한 단 위에 안상을 두른 후 가륜빈가를 새겼다. 가륜빈가의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새인데 8개면 모두 자세와 표정이 다르다. 탑신 받침대 위에 각지게 다듬어진 1단과 연판을 새긴 1단을 놓고 탑신을 받치고 있는 모습 역시 동승탑과 같다.

탑신에는 동승탑과 같이 앞뒤(남북면)에 문비와 동서면에 향완을 조각하였다. 사천왕 도상은 대좌를 표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지물의 방향이나 천의의 휘날림 등 거의 흡사하다. 북승탑 사천왕 역시 동승탑과 마찬가지로 탑을 들고 있지 않다. 탑신은 동승탑을 모본으로 제작한 듯 매우 유사한 도상을 보이지만 차이점도 발견된다. 동서면 향완의 경우 동승탑은 향완인지 사리기인지 구별할 근거가

62) 김사덕 외, 2002, 「연곡사 북부도·동부도 긴급보존처리 및 원형복원」, 『保存科學研究』, 제2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169~170쪽.

63) <구례 연곡사 동승탑>(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용철, 2013년).



북승탑 옛 사진(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36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북승탑 현재 사진

분명치 않았으나 북승탑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향완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승탑도 대좌 위에 향완이 놓여 있는데 북승탑의 경우 天人이 향완을 받들고 있다.⁶⁴⁾

넓은 옥개석은 목조건축의 양식을 따라 이층의 연목과 기왓골 막새를 정성들여 새겼고 아랫면에는 비천을 조각하였다. 지붕마루 끝 윗부분에는 동승탑의 예와 같이 지금은 깨어졌으나 잡상 같은 것을 엮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⁶⁵⁾ 상륜부는 꽃 모양의 양화 위로 보륜, 그리고 사방으로 날개를 활짝 핀 봉황이 조각된 보개 및 보주로 이루어졌는데 봉황의 머리는 모두 결실되었다. 이 가운데 보륜 1대는 2001년 보수 당시 새로 만들어 추가했다.⁶⁶⁾ 네 마리 새의 머리는 모두 파손되었고 뒤쪽으로 광배 같은 조각이 붙어 있다.⁶⁷⁾

64) 전남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945~950년, 보물 274호) 동면과 서면에 표현된 향완의 경우도 연기가 피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65)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7~88쪽.

66) <구례 연곡사 동승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용철, 2013년).

3) 제작 연대

연곡사 동승탑(870년경)과 북승탑(979년경)은 나말여초의 선종사찰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례처럼 하대신라의 개창조와 고려 초기 중창조의 승탑이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례는 곡성 태안사 적인혜철 승탑 (861년경)과 광주 윤다 승탑(945년경)이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며 연곡사 동승탑(870년경)과 북승탑(979년경)을 거쳐 남원 실상사 증각홍척 승탑(9세기 후반)과 수철 승탑(893년경), 장흥 보림사 보조체증 승탑(880년)과 보림사 동승탑(나말여초), 문경 봉암사 지증 도현 승탑(883년)과 정진공양 승탑(956년~965년), 여주 고달사 원종 승탑(977년)과 고달사지 승탑(원갑 승탑 추정, 고려 초기 10세기) 등에서 쉽게 찾아진다.

근래에 이러한 현상과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다. 같은 문중의 도반이 먼저 입적하면 그 승려의 승탑을 조성할 때 생존한 다른 노승의 승탑의 터를 미리 닦아 놓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대석이나 승탑까지도 미리 만들어 놓은 사례를 말한다. 노승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 승탑의 격차는 30년이 훨씬 넘기도 한다.

북승탑은 같은 경내에 위치한 동승탑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일부 다른 면이 보인다. 기본형과 각 부분에 새겨진 부조상들의 주제가 같은 반면 하대석의 표현이나 옥개석 하단의 양쪽에 비천상을 새겨 넣은 점은 이 탑의 다른 특징이다. 그러나 부조상의 조각수법과 하층 하대석에 나타나는 구름문양이 생동감을 잃은 점 등은 동승탑을 모방하여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인다.⁶⁸⁾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동승탑을 모범으로 그 양식을 충실히 이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중대석의 받침처럼 균형미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북승탑의 축대는 앞의 동승탑의 축대와는 분위기가 다른데 이는 시기의 차이와 주변 지형이 다른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축대는 막돌 허튼층으로 쌓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삼층석탑 북동쪽에서 노출된 축대와 동승탑의 축대와 구별된다.⁶⁹⁾

현각선사탑비가 고려 초기인 979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이거나 직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67)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8쪽.

68) <구례 연곡사 동승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용철, 2013년).

69)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8쪽.

4) 북승탑 주인에 대한 고증

이 승탑은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북승탑이라고 하고 있으나 제작 시기상 경내에 있는 현각선사의 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승탑과 비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세워지는 예는 종종 발견되므로 그다지 억측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북승탑이 동승탑을 본뜨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시기의 양식을 표현하는데 다소 소홀하여 연대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북승탑은 현각선사 승탑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돌의 재질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 돌로 만들어진 지대석은 암갈색이고 하대석부터 상륜부는 적갈색을 띤다. 지대석은 동승탑과, 중대석 받침부터 상륜부까지는 현각선사 비의 재질과 유사하다.⁷⁰⁾ 이는 지대석과 하대석은 동승탑 조성 시 제작한 것이고 중대석 받침부터 상륜부까지는 현각선사 탑비 조성 시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일 문중에서 앞서 입적한 승려의 승탑을 만들 때 생존한 노승의 승탑의 축대와 기초도 미리 만들어 놓는 사례가 최근에도 발견된다. 비록 동승탑(870년경)과 북승탑(979년경)이 1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조성되는 물리적인 시차도 존재하지만 무언가 하나의 설계 하에 조성되었을 것 같은 느낌은 지워지질 않는다. “인도스님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창건하였다. 사리탑을 2좌 세웠는데 하나는 원탑(願塔)이 되고 하나는 그 어머니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 된다.”라며 상탑(북승탑)은 연기조사(緣起祖師) 어머니 탑이고 하탑(동승탑)은 연기조사(緣起祖師)탑이라는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1924년)의 기록⁷¹⁾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풍긴다.

비록 북승탑과 현각선사탑비는 같은 축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동일인의 묘탑과 탑비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렵다. 북승탑의 입지적인 조건이 가파른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까닭에 무거운 부재로 이루어진 귀부·비신·이수를 그곳까지 옮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내의 가장 운반하기 편한 장소에 현각선사탑비를 건립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9년 10월 고광순 순절비 성역화 작업 공사 도중 주변을 굴착하는 광경을 지켜보니 지하 수맥이 현각선사탑비 주변 밑으로 흐르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습기가 많아 비석이 약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지반의 약화로 이어져 급기야는 비석이 도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70)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8쪽.

71) 曼宇 鄭秉憲 집록, 1924년 11월, 「附 智異山 鷲谷寺 事蹟記」,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

5.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求禮 薦谷寺 玄覺禪師塔碑)

지정별 : 보물 제152호

지정일 : 1963.01.21.

시 대 : 고려 초기(979년)

크 기 : 높이 207cm

형 식 : 용두귀부, 이수

1) 위치 및 현상

연곡사 경내 서북편에 자리한다. 구체적인 장소는 대적광전 향 좌측인 고광순 순절처 바로 앞이다. 그동안 여러 자료들에서 979년(경종 4)에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왔다.⁷²⁾ 지금은 비신이 없고 귀부와 이수만 남아 있다. 파손되어 균열된 귀부를 1970년에 붙였다고 한다.⁷³⁾ 1936년에 촬영된 조선총독부유리건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에는 귀부 머리 위에 보주 같은 것이 올려져 있었다. 이것은 아마



현각선사탑비 옛 사진(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36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현각선사탑비 현재 사진

72) 『朝鮮金石總覽』 上, 1919, 조선총독부, 555쪽.

『大東金石目』, 1979, 『大東金石文』, 亞細亞文化社, 6쪽.

『求禮 薦谷寺 玄覺禪師塔碑文』, 1995,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17~121쪽.

황호균, 2000, 「薦谷寺 玄覺禪師塔碑 校勘」 <特輯> 全南地域 金石文 校勘 1 : 『불교문화연구』 제7집, 남도불교문화연구회, 67~70쪽.

73) 黃壽永編, 1972, 『金石遺文』 第三輯, 韓國美術史學刊 45쪽.

도 거북이의 입에 들어 있는 보주로 추정된다. 이때에 이미 거북이 머리와 등, 비좌가 절단된 상태였다.

2) 양식적 특징

지대석과 한 돌인 거북이는 네 다리를 사방으로 뻗쳐 납작이 엮드린 형상으로 오른쪽 앞발을 든 동승탑비나 쌍봉사 철감선사탑비와는 반대로 왼쪽 앞발을 살짝 들어 전진하려는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거북이의 목과 가슴 아래에는 물 위를 헤치며 나아갈 때 생기는 물결을 표현하였다. 태안사 적인선사탑비나 쌍봉사 철감선사탑비에서는 네 방향 모두에 입체감 있는 고부조의 생동감 넘치는 물결이 등장한데 비해 연곡사 현각선사탑비와 동승탑비는 앞면에만 표현되었다. 그나마 동승탑비는 쌍봉사 철감선사탑비처럼은 아니지만 생동감과 입체감 있게 묘사된 반면 현각선사탑비는 낮은 부조이고 형태만 보인다.

더구나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태안사 적인선사탑비나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거북이의 네 발가락이나 머리 표현에 비해 현각선사탑비와 동승탑비는 물결 표현처럼 점자적으로 생동감을 잃어갔다.

통일신라말에 조성된 선승들의 비에 등장하는 정교한 거북이에 비하여 거대하고 당당한 자세인데 이는 고려개국의 새로운 힘을 담고 있다.

거북이의 머리는 용의 머리 모양이다. 몸체에 비해 큰 귀두나 비좌 사면에 새긴 안상과 귀꽃이 특이하다. 여의주를 문 입은 뚫어서 크게 벌려놓았고 얼굴 앞면에 커다란 눈과 콧망울을 표현하였다. 비좌는 간결하게 안상을 새겼으며 옆면과 뒷면에는 안상과 중앙에 솟아오르는 꽃무늬를 새겼다. 귀갑문 한 곳에는 ‘卍’자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수는 “玄覺禪師碑銘”이 음각되어 있는 제액을 중심으로 용과 간략화된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귀부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비신 받침에 구멍이 나 있어 배수를 위한 시설로 여겨진다.

현각선사비의 귀부와 이수는 북부도 하대석부터 상륜부까지의 돌의 재질이 유사하다. 현각선사탑비와 연결되는 승탑은 돌의 재질과 양식, 같은 경내에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북승탑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⁷⁴⁾

74)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8쪽.

엄기표,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고』, 학연문화사, 365쪽.



현각선사탑비 이수 재액 옛 사진

현각선사탑비 이수 재액 현재 사진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36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3) 파손 경위 고증

비는 언제 무엇 때문에 파손되었을까? 『大同金石書』⁷⁵⁾의 탁본 상태가 깨끗한 것으로 보아⁷⁶⁾ 그 이후일 것이다. 『鳳城誌』(1800년경)에 의하면 지금에 이르러 마침내 깨뜨려지게 되었는데 이때에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고 한다.⁷⁷⁾ 깨진 원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아 아마도 정유재란 시 화재로 인하여 1차 손상을 입은 것이 풍화에 의해 무너졌고 구한말인 1907년 일본군에 의한 약탈과 방화 시 더욱 철저한 파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앞서 동부도 비의 경우처럼 현각선사 비는 귀부와 이수 모두 불을 맞아 적갈색을 띠기 때문이다. 비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균열된 귀부는 1936년에 촬영된 조선총독부유리건

75)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1668년 서예가 이우가 우리나라 금석문의 탁본(搨本)을 연대순으로 엮은 서첩. 7책(正帖 5책, 續帖 2책). 신라 진흥왕순수비로부터 조선 숙종 시대에 이르는 고비(古碑)·탑비(塔碑)·석당(石幢)·석각(石刻) 등 약 300여종의 탁본을 수집하여, 각 탁본의 일부분을 동일한 크기로 오려 수록하였다. 이우가 우리나라의 금석문 탁본을 수집함에 그치지 않고, 그 목록을 작성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금석학의 기초를 이룬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금석문은 청나라의 학자들에게도 보내져 『해동금석존고(海東金石存攷)』·『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등의 저서를 남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응현, 1996년)

76) 李侯, 『大同金石書』,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2, 47쪽.

77) 『鳳城誌』(1800년경) 佛宇條. / 『湖南邑誌』 第3冊, 求禮 佛宇條(1872년경).

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에는 한데 모아 놓았고 이수도 비좌 위에 올려져 있었다.

1686년에 丁時翰이 기록한 『山中日記』에는 “연곡사(燕谷寺)에 가서 비전에 있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문을 보았는데 빗돌이 깨진 지 지금 7년에 되었다.”고 묘사하였다.⁷⁸⁾ 1679년에 깨졌다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석들은 현각선사(玄覺禪師)의 오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비전에 가서 비문을 보았다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현각선사비의 상태가 양호한 탁본 모습이 실린 『大東金石書』(1668년)의 존재로 미루어 11년 뒤에 파손되었을 정황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丁時翰의 『山中日記』(1686년)에서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문을 보았는데 빗돌이 깨진 지 지금 7년에 되었다.”는 것은 탑비 전체의 도괴가 아니고 빗돌 일부 파손으로 추정된다. 李彦根의 『遊方丈錄』(1753, 1756)에서 “도선의 비가 서편 전각 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았다. 비는 이미 넘어지고 부서져 겨우 글자 모양을 상고할 수 있었다.”고 묘사한 부분은 말 그대로 비 전체의 도괴를 설명했지만 비신이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임도 아울러 담고 있다.

하지만 『鳳城誌』(1800년경)에서 “현각선사비가 왜란 후에 문자의 획이 박락되었다가 지금에 이르러 마침내 깨뜨려지게 되었고 이때 연곡사의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고 한다.”고 기록한 것은 비 전체의 도괴뿐만 아니라 귀부의 파손과 비신의 완전 파손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시한과 이연근의 기록은 『鳳城誌』의 기록으로 비추어 볼 때 모두 동승탑비가 아니라 현각선사탑비를 다루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정시한이 1679년에 깨졌다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석들은 현각선사(玄覺禪師)의 오인으로 상정해 놓고 보니 『鳳城誌』와 12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동승탑비에 관련된 글씨 있는 비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한 해석이라는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이러한 의문은 지금의 단계에선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옛 문헌에서 ‘숙’이라는 시점의 개념이 정확히 그 당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니 그렇더라’는 식일 경우가 많았다. 121년의 시간적인 격차를 명확히 인식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지금에 보니 글자 있는 빗돌이 깨졌더라’는 단순한 감상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표현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1750년대에 이연근(李彦根: 1697-1764)이 기록한 『遊方丈錄』(1753, 1756)에는 “조식 후에 도선의 비가 서편 전각 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았다. 비는 이

78) 정시한(丁時翰) 산중일기(山中日記)(上)[1686년(숙종 12)~1688년(숙종 14)].

미 넘어지고 부서져 겨우 글자 모양을 상고할 수 있었다.”⁷⁹⁾고 한다. 비의 소재가 서편 전각 뒤에 있고 글자 모양을 겨우 상고할 수 있다고 묘사한 점으로 미루어 현각선사비가 분명하다.

이처럼 현각선사(玄覺禪師)를 선각선사(禪覺禪師)로 오해하는 현상은 『山中日記』(1686년)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아마도 이러한 착오는 현각선사탑비 이수 전액에 새겨진 “玄覺禪師碑銘” 글씨 중 “玄”부분이 희미해서 생긴 오해로 추정된다. 이는 『산중일기(山中日記)』(1686년)의 오류를 무비판적으로 70여 년간 그대로 계승된 사례로 여겨진다.

하지만 『鳳城誌』(1800년경)에 등장하는 현각선사비 파손 기록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 “고려학사 왕용이 지은 현각선사비가 왜란 후에 문자의 획이 박락되었다가 지금(1872년경)에 이르러 마침내 깨뜨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연곡사의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고 한다.”⁸⁰⁾ 이러한 묘사의 혼란은 아마도 현각선사탑비 귀부가 파손된 상태로 촬영된 1936년 사진(조선총독부 흑백유리건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비신의 일부만 깨지는 것과 비석 전체가 넘어져 귀부까지 파손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혼란으로 이해된다.

현각선사 탑비의 깨진 원인에 대해서는 김창호가 쓴 1949년 <동광신문> 답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전한다. “傳說에 依하면 洞里 사람들의 先代가 寺奴로 畵여있으므로 그 후예들이 崩建적 수치라고 憤慨한 나머지 드디어 破壞하고 말았는데 이 碑石을 없이자는 相議를하였던바 그가三日동안이나 울어 그 振動하는 소리가 앞산에까지 울리었다는 傳說이 있다.”⁸¹⁾ 『鳳城誌』(1800년경)에 의하면 탑비가 파손되었는데 남쪽 산이 3일 동안 울었다는 내용만 같을 뿐 파손된 원인은 기술하지 않았다. 동리사람들이 선대가 사노로 있으므로 그 후예들이 봉건적 수치라고 분개하여 파괴하고 말았다는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전설로 소개한다. 조선 후기 왕실의 神主木(位牌木)을 봉납하는 ‘栗木 主材封山’의 고달픈 노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다.

이어서 “그런데十餘年前 日本考古學者小川, 藤島兩人이 찾아와 이를 三百萬圓의 評價를하여 京都로 옮겨갈 꾀를 하였는데 함마트면倭놈들에게 빼앗길변하였다” 하여 1939년경에 일본고고학자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⁸²⁾와 후지시마 가이지

79) 『유방장록(遊方丈錄)』

80) 『鳳城誌』(1800년경) 佛宇條. / 『湖南邑誌』 第3冊, 求禮 佛宇條(1872년경).

81) 曉泉 金昌浩, 1949. 7. 10(3면), <내고장의자랑! 옛美術을 차저서, 感懷의 古僧都 燕谷寺篇>, 東光新聞 第965號(6권), 東光新聞社(광주).

로(藤島亥治郎)⁸³⁾가 찾아와 현각선사탑비를 삼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일본 京都로 옮겨가려고 했다고 한다.

이 답사기에서는 신라말 도선대사 중수와 乙酉年(1905년 / 원래는 을사년인 1907년)義兵大將高光洵의 순국, 壬子年(1912년)[원래는 1924년]에 이르러 洞里有志 孫範城氏의 再建 사실도 기록하였다.⁸⁴⁾

더구나 三層石塔의 相輪도 缺如된 사실을 기록했고 “東浮屠를 新羅末 眞興王一三七十年前(579년 / 원래는 547년) 道선國師塔”이며 “東浮屠碑는 道선國師事蹟碑이며 北浮屠는 道선國師慈母塔”이라는 것이다.

4) 여러 비편에 대한 고증

지금까지 연곡사에서 발견된 명문을 알 수 있는 비편은 모두 8개이다. 이는 『대동금석서』의 68자⁸⁵⁾, 『조선금석총람』의 122자⁸⁶⁾, 『금석유문』의 24자⁸⁷⁾, 『한국금석문대계』의 6자⁸⁸⁾, 전남대학교 박물관 시굴조사에서 발견된 비편의 16자, 前 주지 고봉스님이 수습한 비편의 3자⁸⁹⁾,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연곡사 비편의 15자⁹⁰⁾, 佛敎 제39호의 48자⁹¹⁾로 총 302이다. 이 가운데 판독 가능한 글자는 281자이고 나머지 21자는 판독하기 어렵다. 현각선사비의 전액에 쓰여진 6자를 포함하면 모두 308자이다.

82)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와 기수.

83) 동경제국대학교 건축과 교수.

84) “이절은 新羅末道선大師가重修하였던바 ... 乙酉年義兵大將高光洵氏 淳昌人 가駐屯中倭兵이來襲하여 無慘히도 六百將兵이 쓰러지고 高樓巨閣은 烏有로 돌아가 一時荒廢하였던바 壬子年에 이르러 洞里有志孫範城氏로부터뜻한바있어 再建하였다 高麗光宗때 全鮮僧侶를모아 僧科舉行하였음으로 이곳을僧都地라하였다(高麗學士王融贊文輔國張信元書云)”.

85) 『大同金石書』는 李俟가 1668년(현종 9)에 우리나라 금석문 탐본을 연대순으로 엮은 첩책인데 탐본상태로 보아 비가 파손된 흔적이 없다. 李俟, 『大同金石書』,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2, 47쪽.

86) 『朝鮮金石總覽』 上, 1919, 조선총독부, 555~556쪽.

“求禮燕谷寺玄覺禪師塔碑(本府博物健藏舊拓二依ル) / 年時 高麗景宗四年己卯(皇紀 一千六百三十九年) / (字徑七分楷書)”

87) 黃壽永, 1972, 『金石遺文』, 韓國美術史學會, 44~45쪽.

88) 越東元 編著, 『韓國金石文大系』 卷一 全羅南北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79, 24쪽.

89)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94쪽.

90) 김진덕·김선·김경식·양종현, 2013, 『구례 연곡사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재)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연곡사, 43쪽.

91) 佛敎 제39호(1927, 佛敎社)의 燕谷寺玄覺國師碑(燕谷寺藏 學士 王融撰 輔國 張信元 書).

〈표 1〉 현각선사탑비 비편 현황

수록 및 수습자	실물여부	총 글자	판독	미 판독	소장처
『대동금석서』	탁본	68	68	0	조선총독부박물관
『조선금석총람』	판독문 탁본	122	122	0	조선총독부박물관
『금석유문』	판독문	24	16	8	구례군청
『한국금석문대계』	탁본	6	6	0	조동원
전남대 시굴조사	실물	16	14	2	전남대 박물관
고봉 수습	실물	3	2	1	고봉
성신여대박물관	실물	15	12	3	성신여대박물관
佛敎 제39호	탁본	48	41	7	탁본 사진 수록
합 계		302	281	21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글씨체를 알 수 없는 『조선금석총람』과 『금석유문』을 제외한 6개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글씨체가 모두 구양순체(歐陽詢體)를 바탕으로 하는 구성궁예천명인 점은 같으나 글씨의 맛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동금석서』의 탁본상태가 여러 차례 영인을 거친 탓에 글씨 끝이 많이 뭉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나아가 『대동금석서』와 <佛敎 제39호>에 실린 글씨를 비교하니 『대동금석서』 하단 두 글자가 <佛敎 제39호>의 상단 두 글자와 다섯 줄이 동일한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서체 비교에서 자신감을 얻어 글씨를 알 수 있는 비편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니 『대동금석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시굴조사에서 발견된 비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연곡사 비편, 『한국금석문대계』에서 일부 같은 글씨와 변이 동일한 비편으로 판단될 정도로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글씨를 알 수 있는 6개의 비편은 모두 동일한 서체인 현각선사탑비의 비편으로 판명되었다.

다행히 『조선금석총람』을 펴낼 때 참고한 조선총독부박물관 탁본첩을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사진(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서체 확인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대동금석서』의 탁본이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사진(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탁본첩 형태로 발견되었다. 『조선금석총람』과 동일한 탁본 솜씨로 확인되어 그동안 알려진 글자 획이 뭉그러진 영인본 『대동금석서』보다 비편 실물의 서체 맛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석유문』의 註에 기록된 대로 현각선사 비 귀부 보수 시 그 주변에서 맹인재 선생이 발견하여 군청에 보관한 비편²⁾

이나 이를 탁본한 자료만 찾아진다면 보다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씨 크기가 두 가지로 구별되는 점은 또 하나의 의문으로 남는다. 지금 2cm 내외의 경우는 『조선금석총람』의 2.1cm, 『금석유문』의 2cm, 『한국금석문대계』 2cm이고, 지름 3cm 내외의 경우는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비편 3.5cm, 주지스님 습득 비편 3cm이다.⁹³⁾

5) 비문 내용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옛 탁본첩에 의하면 “賜紫金魚袋臣張信元書”라 하여 단편적인 내용만 전한다.⁹⁴⁾ 탁본첩 머리에 “張信元 燕谷寺碑 麗景宗四年書 宋太宗興國四年 求禮 王融文”이라 하여 필사한 제작 연대(高麗 景宗四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탁본첩을 판독한 자료인 『朝鮮金石總覽』(1919년)에도 “求禮燕谷寺玄覺禪師塔碑(本府博物健藏舊拓二依ル)”이라며 근거를 밝히면서 “年時 高麗景宗四年己卯(皇紀 一千六百三十九年)”이라며 제작 연대를 그대로 기록했다. 제작 연대는 비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옛 탁본첩의 머리 글씨가 원전인 듯하다. 제작연대가 기록된 비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高麗景宗四年”이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大同金石書』(1668년)에도 “張信元 同政柱國 鷲谷寺玄覺禪師碑”라며 제작연대는 언급하지 않았다. 『校訂 大東金石目』(1932년)⁹⁵⁾에는 ‘總覽附七’이라며 『朝鮮金石總覽』(1919년)의 출전을 밝히면서 “鷲谷碑 在求禮智異山 鷲谷寺玄覺禪師碑 宋太宗太平興國四年己卯立 求禮 王融文 麗景宗四年也”라며 서로 내용을 공유하였다.

『槿域書畫徵』(1928)에 『海東金石總目』이라는 출전을 밝히며 燕谷寺 玄覺禪師碑를 경종 4년(979년)에 學士 王融이 비문을 짓고 柱國 張信元이 썼다고 기록하였다. 『東國金石評』에는 “연곡(사)의 비는 자체가 고졸하며”, 『書鯖』에서는 “현각선사비는 글씨체가 예천명류인데 해서체를 심득했고 정숙하고 연수하다”라며 이른바 당 태종의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醴泉銘)의 서풍임을 말하고 있다.⁹⁶⁾ 이러한 구성궁

92) 黃壽永編, 1972, 『金石遺文』 第三輯, 韓國美術史學刊 45쪽의 註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一九七〇년 三月 全南求禮 鷲谷寺玄覺禪師碑 龜趺補修할 때 그 後方土中에서 孟仁在氏가 發見하여 郡廳에 保管하였다. 크기는 長 十九cm, 橫 十五cm이며 字徑 약 二cm이다.”

93)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94~96쪽.

94) 『朝鮮金石總覽』(1919년)에 실린 현각선사비문은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탁본첩을 판독한 것이다.

95) 『校訂 大東金石目』, 昭和七年(1932년),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朝鮮印刷株式會社印刷.

예천명(九成宮醴泉銘) 서체는 구양순체(歐陽詢體)를 바탕으로 하는 육조시대의 사경체(醴泉銘)이며 자형을 바르게 하여 고박한 글체의 형태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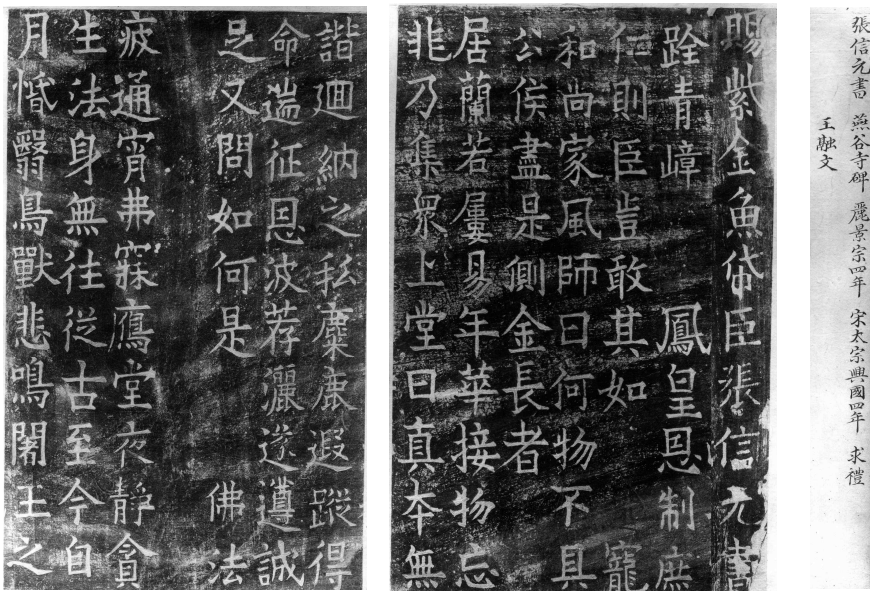
비문에는 “賜紫金魚袋臣張信元書”라는 내용은 있지만 “景宗四年”에 건립했다는 글귀는 발견되지 않는다. 건립시기에 대해 언급한 가장 이르시기의 자료는 吳世昌이 『槿域書畫徵』(1928년)에서 인용한 『大東金石書』(1668년)의 또 다른 이름인 『海東金石總目』(조선후기)의 “景宗四年建”이다. 이후 『朝鮮金石總覽』上(1919년)에 “年時 高麗景宗四年己卯(皇紀 一千六百三十九年)”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탁본첩 촬영 유리건판(국립중앙박물관)〉

【크기】

높이 19cm, 너비 19cm, 글자 크기 2.1cm

【원문】



〈그림 20~22〉 조선총독부박물관 탁본첩 촬영 유리건판(1930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96) 이러한 사실은 吳世昌, 『槿域書畫徵』 권 二 麗代編, 啓明供樂部, 1928, 12쪽에 잘 나타나 있다. “張信元 / 官上柱國. 景宗四年建. 燕谷寺玄覺禪師碑. 學士王融撰. 柱國張信元書在求禮智異山(海東金石總目) / 燕谷碑, 體姑而拙(東國金石評) / 玄覺禪師碑, 字體類醴泉銘, 深得指法, 精熟規秀(書鯖)”.

【판독문】

月	生	疲		足	命	諧	兆	居	公	和	仁	跽	賜	張
昏	法	通		又	過	迴	乃	蘭	侯	尙	則	青	紫	信
翳	身	宵		問	征	納	集	若	盡	家	臣	嶂	金	元
鳥	無	弗		如	恩	之	衆	屢	是	風	豈		魚	燕
獸	往	寐		何	波	私	上	易	側	師	敢		帑	谷
悲	從	鴈		是	荐	麋	堂	年	金	曰	其	鳳	臣	宗
鳴	古	堂			灑	鹿	曰	華	長	何	如	皇	張	四
闇	至	夜			遂	遐	眞	接	者	物		恩	信	年
王	今	靜		佛	遵	蹤	本	物		不		制	元	書
之	自	貪		法	誠	得	無	忘		具	寵	庶	書	求
														禮

張信元 燕谷寺碑 麗景宗四年書 宋太宗興國四年 求禮

王融文

(以上國立博物館舊藏拓本)⁹⁷⁾

	化	所	□	
□	慘	而	邊	發 盡
□	窮	其	促	之
	者	嗣	織	□
	□	□	初	□
		□	吟	

(以上新發見碑片)⁹⁸⁾

〈출전〉 허흥식, 1984, 『韓國金石全文』 中世上篇, 亞細亞文化社.

97)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의 일제강점기자료원문 서비스의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유리건판 공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1930년 촬영 2장의 탁본 사진을 『조선금석총람』의 판독문과 비교하여 문단 재조정.

98) 『금석유문』의 문단 앞줄 간격 재조정.

【해석문】

(결락) 紫金魚袋를 하사받은 신(臣) 장신원(張信元)이 비문을 쓰고, (결락) 푸른 산속에 은둔하여 수도(修道)에 전념하였고 (결락) 봉황(鳳皇)의 은혜를 입었으며, 制庶 (결락) 仁則 (결락) 신이 어찌 감히 왕의 총애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결락) 화상(和尚)의 가풍(家風)은 어떤 것입니까?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물(何物) 인들 갖추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 공후(公侯)들이 모두 존경할 뿐만 아니라, 김장자(金長者)의 곁에서 (결락) 난야(蘭若)에 거(居)하기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교화제접(教化提接)한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결락) 어느 날 대중을 모아 놓고는 법상(法床)에 올라 앉아 진여(眞如)는 본래 생(生)함이 없고, (결락) 회납(迴納)의 私를 모두 하나로 해합(諧合)하는 것이라 하였다. (결락) 항상 스님의 곁에는 미록(麋鹿)이 따랐고, 임중에 가까와서는 은파(恩波)가 더욱 컸었다. 드디어 유계(遺誡)를 마치고 (결락) 足 (결락) 제자가 또 묻되, 불법(佛法)이란 어떤 것입니까? (결락) 피로(疲勞)를 잊고 철야 정진하여 잠을 자지 아니하였다. (결락) 깊은 밤 선실(禪室)에 앉아 (결락) 생(生)을 탐(貪)하지 않았고,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법신(法身)은 오고 감이 없다. (결락) 옛부터 지금까지 (결락) 달빛은 희미하고 새와 짐승들은 슬피 울었으니, 마치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던 날 아도세왕(阿闍世王)이 들보가 부러지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이상(以上)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탁본(舊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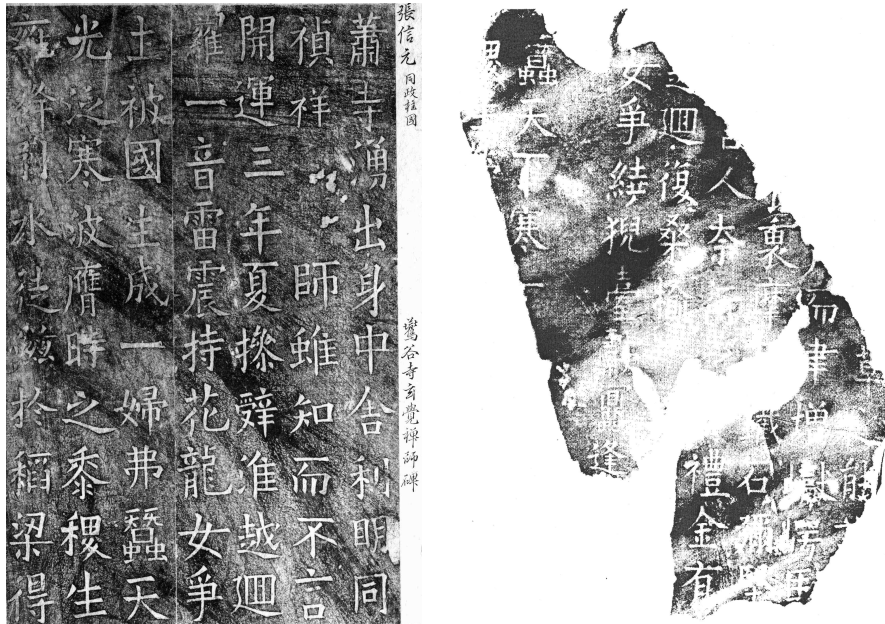
(결락) 盡之 (결락) 發促織初吟 (결락) 邊 其嗣 (결락) 所而窮者 (결락) 化慘 (결락)

[이상(以上)은 신발견(新發見) 비편(碑片)]

<출전> 이지관, 1995,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伽山佛教文化研究院.

〈조선총독부박물관 탁본첩 촬영 유리건판(1930년, 대동금석서) 탁본(上)과 佛教 제39호(1927, 佛教社)의 탁본(下) 상하 병합〉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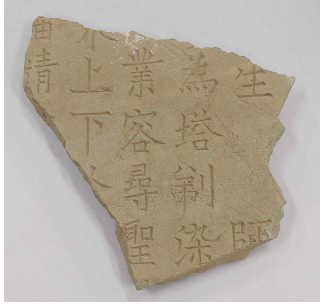
〈그림 23~24〉 조선총독부박물관 탁본첩 촬영 유리건판(1930년, 대동금석서) 탁본(上)과 佛教 제39호(1927, 佛教社)의 탁본(下) 상하 병합 - 上하단 2칸 5줄과 下상단 2칸 5줄 동일 -

【판독문】

張信元 同政柱國 鵞谷寺玄覺禪師碑						
雍絳別水徒滋於稻梁得	光泛寒波膺時之黍稷生	土被國生成一婦弗蠶天	羅一音雷雷持花龍女爭	開運三年夏摻辭淮越廻	禎祥師雖知而不言	肅寺湧出身中舍利明同
		下寒一	繞猊臺甬	復桑榆	人奈	□裏摩
			□逢		□	□蠟石彌堅
					禮金有	□
						草能
						□

※ 開運三年(946년)은 고려 정종 1년으로 무위사 선각대사형미의 탑비 건립연대이기도 하다.

〈비석 실물 및 탁본〉



〈그림 25〉 전남대박물관 시굴조사
수습 비편(1993년)



〈그림 26〉 성신여대박물관 소장 비편



〈그림 27〉 전남대박물관 시굴조사
수습 비편 탁본(1993년)



〈그림 28〉 고봉 수습
비편 탁본



〈그림 29〉 한국금석문대계
수록 탁본

□ 水
□ 上 業 爲 生
下 容 塔
人 尋 剎
聖 染 師
전남대박물관 시굴조사 수습 비편(1993년)

麤 老	拔 梵 今	香 □
	葵 之 南	
	楚 私 雷	
성신여대박물관 소장 비편		

□ □	□
風 □	
雨 其	
고봉 수습 비편 탁본	

天 明	
意 靈	
無 必	
한국금석문 대계 수록 비편(탁본)	

6) 문헌 고찰

조선 후기인 1686년에 정시한이 기록한 『산중일기(山中日記)』 7월 27일과 30일 기록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한다.⁹⁹⁾ “...연곡사(燕谷寺)에 가서 비전에 있는 선각선사(禪覺禪師)의 비문을 보았는데 빗돌이 깨진 지 지금 7년에 되었다.”(병인년, 1686년, 7월 30일)¹⁰⁰⁾ 다만 1679년에 비석돌이 깨졌다는 선각선사(禪覺禪師)는 현각선사(玄覺禪師)의 오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비문을 보았다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668년 서예가 이우가 우리나라 금석문의 탐본(搨本)을 연대순으로 엮은 서첩인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실린 탁본의 상태가 양호한 현각선사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각선사(玄覺禪師)의 선각선사(禪覺禪師) 오독은 그동안 연곡사 동승탑을 도선(선각국사)의 묘탑으로 인식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나 『산중일기(山中日記)』에서 오류의 최초 근거를 찾게 되었다.

조선 후기인 1750년대의 이언근(李彦根: 1697-1764)의 『유방장록(遊方丈錄)』(1753, 1756)에는 지리산의 생생한 모습을 묘사했다. “조식 후에 도선의 비가 서편 전각 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았다. 비는 이미 넘어지고 부서져 겨우 글자 모양을 상고할 수 있었다.” 서쪽이라면 현재 현각선사탑비의 이수에 현각왕사비명의 전액이 명확하게 남아 있으므로 착오가 일어날 수 없고 혹시 동쪽에 있는 동승탑의 비석 파편을 본 것은 모르겠으나 단정 짓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산중일기(山中日記)』(1686년 7월 27일과 30일)에서 보았다는 비전의 현각선사(玄覺禪師) 비문은 선각선사(禪覺禪師) 비문으로 오독한 앞선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70여 년 간 그대로 계승된 사례로 여겨진다.

99) 산중일기(山中日記)는 조선후기 학자 정시한(丁時翰)이 우리나라 명산 고찰 및 서원 등을 여행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견문록.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이 62세 때인 1686년(숙종 12) 3월부터 1688년(숙종 14) 9월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일대의 명산 고찰 및 서원 등을 여행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유람기이다. 2권 2책으로 된 필사본이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차 여행은 1686년(숙종 12) 3월 13일에 원주(原州) 대야(大野)의 본가를 출발하여 이듬해 1월 23일까지로 속리산·지리산·덕유산 일대를 여행하였다. 2차는 1687년(숙종 13)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치악산 일대를 여행하였다. 3차는 같은 해 8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여 동안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였다. 마지막 4차는 1688년(숙종 14) 4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상도 안동·의성·청송 등지의 서원 및 팔공산 일대를 여행하였다. 정시한은 3년(22개월, 총 600일)에 걸쳐 네 차례의 여행 동안 전국의 명산 고찰을 유람하면서 매일매일 그날의 일과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였다. 특히 총 300여 사찰에 들러 주위 환경과 감상, 만난 승려들의 이름과 성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경숙, 2015년)

100) 정시한(丁時翰) 산중일기(山中日記)(上)[1686년(숙종 12)~1688년(숙종 14)].

6.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求禮 鵞谷寺 逍遙大師塔)

지정별 : 보물 제154호

지정일 : 1963.01.21.

시 대 : 조선후기(1650년)

크 기 : 높이 321.0cm

1) 위치 및 현상

연곡사 서북쪽에 위치한다. 연곡사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도라고 했는데 탑신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소요대사탑임이 밝혀졌다.¹⁰¹⁾ 이로 인해 문화재 명칭도 2009년에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부도로 변경되었다.¹⁰²⁾ 이후 2010년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부도로 변경되었다.¹⁰³⁾

2) 양식적 특징

소요대사탑은 동승탑과 같은 팔각원당형 승탑이다. 앞면에 용 네 마리와 구름 무늬를 새긴 기단의 하대석 상면 안쪽에는 넓은 홈을 파서 배수시설을 갖추었으며 그 안쪽 중대석 받침에는 연화문이 표현되었다. 구형처럼 보이거나 중대석 역시 팔각으로 양복편을 돌을새김 하였다. 상대석은 단판 팔엽의 연화문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파초무늬가 새겨진 둥근 탑신 받침이 놓여 있다. 팔각 탑신 중 북쪽 탑신에는 탑명이 새겨져 있고 남쪽 탑신에는 문과 자물쇠가 표현되어 있다. 나머지 6면에는 구름대좌 위에 두터운 천의를 두르고 주먹을 쥔 인왕상과 무기를 든 사천왕상이 각각 새겨져 있다. 앞 문비 좌우에는 흙 인왕상을 조각하였고 나머지 면에는 사천왕상을 표현하고자 하여 지물을 든 상을 조각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은 동일한 인왕의 모습으로 동부도와 북부도 탑신에 새겨진 사천왕상과는 차이가 있다. 나말여초 승탑 탑신에는 일반적으로 사천왕과 제석·범천 6구의상이 새겨지는데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도상 전통은 지켜지지 못하였으나 승탑을 호위하는 의미만은 지속되어 인왕과 사천왕상이 새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

101) 黃鑑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8~91쪽.

102) 문화재청 고시 제2009-67호(2009. 8. 17.),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변경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고시 알림(구례 연곡사 소요대사부도), 유형문화재과 - 1586(2009. 8. 17.)

103)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석조문화재) 명칭변경 관보고시 알림(2010. 12. 27.)



소요대사탑 옛 사진(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36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요대사탑 현재 사진

봉들은 얇게 치석되어 있는데 낙수면은 우동마루만 돌출되어 있고 추녀 끝에는 커다란 귀 꽃이 장식되어 있다. 상륜부는 한 돌로 온전히 남아 있다. 동부도 상륜부를 본떠 봉황을 조각하였는데 동부도와 북부도 상륜부 복구 작업 때 거꾸로 이 부도의 상륜을 참조하여 봉황의 위치와 각 부재의 제 위치를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 승탑의 봉황은 꽃 위에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깃든다고 하니 이 꽃은 오동꽃으로 생각된다.¹⁰⁴⁾

3) 제작 연대

탑신석 한 면에 「逍遙大師之塔/順治六年庚寅」이라는 두 줄의 오목새김 명문이 세로로 쓰여 있다. 소요태능(1562~1649)은 백양사에서 계를 받고 부휴대사에게서 경전을 배웠으며 西山에게서 淸淨本源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한다.¹⁰⁵⁾ 순치 6년은 1649

104) 강삼혜,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教美術研究 調査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155쪽.

105) 金恒塔, 1974, 『西山門徒의 思想』, 원광대 불교사상사, 916쪽.

년이나 경인년은 1650년(효종 1)이므로 1650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⁰⁶⁾

소요대사는¹⁰⁷⁾ 순치 6년(1649년)에 입멸하였는데 바로 그다음 해(1650년)에 이승탑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 승탑의 주인인 소요대사 행적을 기록한 탑비는 금산사에 있다.¹⁰⁸⁾ 소요대사 승탑은 지리산 연곡사를 비롯하여 두륜산 대둔사·보개산 심원사·김제 금산사에 소요대사 승탑이 건립되었다고 전한다.¹⁰⁹⁾ 대흥사의 명문 있는 승탑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승탑은 연곡사·심



금산사 소요당대사탑비 옛사진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금산사 소요당대사탑비 현재 사진

106) 연호와 간지의 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간지의 연대를 취하는 것이 금석문의 일반적인 접근이다.

107) 소요대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逍遙堂集』

불교신문사편, 1990, 『한국 불교 인문사상사』, 민족사, 326~335쪽.

李永子, 1984, 「朝鮮 中·後期の 禪風」, 『韓國禪思想研究』, 東國大出版部, 370~374쪽.

108) 『朝鮮金石總覽』, 1923, 朝鮮總督府, 890~891쪽.

109) 『金山寺 逍遙堂大師浮屠碑』, 1923, 『朝鮮金石總覽』下, 890~891쪽.

梵海 撰·金倫世 譯, 1991, 『東師列傳』, 광제원, 164~166쪽.

「소요대선사 행장」, 『逍遙堂集』; 「逍遙宗師傳」, 東師列傳 권2.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88~91쪽.

成春慶, 2003,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0, 212쪽.

원사지·장성 백양사·담양 용추사이며 전북의 금산사에는 소요대사 승탑 부재와 탑비 등이 전해오고 있다.¹¹⁰⁾ 고려 후기 승려의 장법이 다비에 의해 치러짐에 따라 승탑 조형이 단순해지고 사리를 여러 곳에 나누어 승탑을 건립할 수 있었다. 고려 말 지공선사를 비롯하여 나옹 해근 승탑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석했던 사찰이나 입적한 사찰 등에 승탑을 건립하는 전통이 수립되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스님의 속성은 오씨이고 이름은 태능이며 소요는 호이다. 호남 담양 사람으로 1562년 9월에 태어나서 13세에 백양사 진표스님에게 머리를 깎았다. 부휴당 선수 스님에게서 경률의 깊은 뜻을 익히고 서산대사를 두 번 찾아가 근원이 되는 청정함을 깨달았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나라의 명을 받고 남한산성 西城을 보완하였으며 지리산 신흥사와 연곡사를 중건하였다. 1649년 11월 21일 열반에 드니 나이 88세였고 법랍은 73세였다.¹¹¹⁾ 태능의 법을 이은 제자로는 선종을 이은 침굉현변(1616~1684)과 교종을 전수받은 해운경열(1580~1646)이 있으며 전법제자만도 30여 명에 이른다.¹¹²⁾

7. 그 밖의 승탑

1) 보월당영탑(葆月堂靈塔)



보월당영탑

소요대사탑 서쪽에 있는 보월당영탑은 석종형이다. 자연석을 다듬어 만든 지대석 위에 올려져 있다. 지대석 뒷면에는 바깥쪽으로 홈이 나 있는데 소요대사탑의 예와 같은 배수시설로 보인다. 탑신 상면에는 8엽의 연꽃이 복련으로 돌을새김 되어 있으며 상륜은 연봉오리 모양이다. 몸돌에 “葆月堂靈塔”이라는 탑명이 새겨져 있다.(크기 : 전체 높이 150cm, 지대석 가로 120cm, 지대석 세로 140cm, 지대석 높이 10cm, 석종 높이 140cm)

110) 成春慶, 2003,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0, 209~233쪽.

111) 「소요대선사 행장」, 『逍遙堂集』.
李景奭, 「逍遙碑銘」, 『逍遙堂集』.

成春慶, 2003,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0, 213쪽.

112) 「소요대선사 행장」, 『逍遙堂集』; 「逍遙宗師傳」, 東師列傳 권2.

2) 조선후기 승탑 1

소요대사탑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잘 다듬은 지대석 위에 올려져 있다. 상·하대석은 양면과 북면이며 탑신은 원구형이다. 팔각지붕의 옥개석 처마 끝에는 귀꽃이 장식되어 있다. 옥개석 상단에 구멍이 있어 상륜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묘 주인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없으며 조성연대는 형태로 보아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크기 : 전체 높이 137cm, 지대석 한 면 너비 112cm, 지대석 높이 2cm, 옥개석 너비 66cm)

3) 조선후기 승탑 2

소요대사 부도 북동쪽에 위치한다. 지대석이나 중·상대석 없이 바로 하대석 위에 건립되었다. 탑신은 납작한 팔각구형이고 지붕은 위쪽으로 길쭉한 팔각형이다. 옥개석과 상륜부의 연봉우리는 한 돌이다. 그런데 지붕마루 끝이 연결되지 않고 끈긴 점은 동승탑과 북승탑을 보고 배운 듯하다. 조성연대는 대체로 조선후기로 보인다.(크기 : 전체 높이 201cm, 옥개석 너비 88cm)



조선후기 승탑 1

조선후기 승탑 2

4) 종인(宗仁)화상 승탑

현각선사 비의 남서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지점에 자리한다. 연곡사에서 주석하면서 1980~1990년대 불사를 주도했던 ‘宗仁’ 화상의 승탑이다. 2단의 축대 위에 화강암을 잘 다듬어 모셨다. 지대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팔각기둥 모양의 지대석 위에 석종형의 탑신을 올려놓았다. 지대석 상면에 연꽃을 새겼다. 탑신에 유곽을 마련하여 유두형 돌기 6개를 두 줄로 배치하고 그 옆에는 비천을 역시 도드라지게 새겼다. 탑신 윗면에는 상륜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파상곡선 무늬를 선으로 새겼다. 몸돌 중앙에 한 단 들어간 액을 만들고 그 안에 ‘宗仁和尚浮屠’라는 탑명을

세로로 새겼다.(크기 : 전체 높이 130cm, 축대 높이 50cm, 축대 너비 130cm)

8. 기타 석조물

현재 연곡사 경내에는 석등부재인 간주석·연화문 하대석과 11개의 초석이 제자리를 잃고 흩어져 있다. 자연석을 다듬어 만든 맷돌도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데 모두 5개이다. 이 외에 돌확 1개와 근래에 만든 석등 2개·괘불석주 2개도 남아 전한다.

1) 석등 간주석과 하대석



석등 부재

대적광전 앞쪽 계단 오른편 화단 가에 놓여 있다. 화사석·상륜·상대석은 잃어버리고 간주석과 하대석만 남은 상태이다. 간주석 마저 허리부분이 잘려진 채로 방치되고 있던 것을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다.¹¹³⁾

간주석은 팔각기둥 모양이며 위아래에 상대석과 하대석에 끼울 수 있는 돌기를 만들었으며 중간부분이 절단된 것을 올려놓았다. 하대석은 연꽃 8엽이 돌렸고 하대석 윗면 중앙에 간주석과 결구를 위

해 원형의 구멍이 패여 있다.

제작연대는 현재 남아 있는 부재만을 가지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주변의 유물들과 관련이 있는 고려시대의 석등 부재로 추정된다.(크기 : 남은 높이 118cm, 간주석 높이 73cm, 간주석 한 면 너비 10cm, 하대석 지름 45cm, 하대석 높이 25cm)

2) 초석

경내 여기저기에 흩어진 채로 방치된 초석은 모두 11점이다. 형식상 삼단주좌와 일단주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삼단주좌 초석

이러한 형식의 초석은 5점이 조사 되었다. 이 중 4점은 심방석을 놓았던 자리를

113)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96쪽.

모각하고 있는데 모서리 초석은 1점이다. 삼단의 주좌는 중앙만 둥그렇고 상하단은 각지게 꺾인다. 초석 윗면을 잘 다듬었으며 측면이나 아랫면은 거칠다. 제작시대는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으나 늦어도 고려시대이고 빠르면 동부도의 건립시기인 통일신라 말까지 올라 갈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일단주좌 초석

일단주좌식 초석은 6점이 남아 있다. 이 중 5점은 원형이나 1점만 방형이다. 윗면 뿐 만 아니라 측면까지도 잘 다듬었으며 아랫면은 거칠다. 이러한 형식의 초석은 조선 후기부터 최근까지 흔히 볼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1779년(정조 3)에 桐坡堂 定心禪師에 의해 건립된 대웅전 중건과 관련성이 높다.

3) 맷돌

연곡사 경내 여기저기에서 5점의 맷돌이 조사되었다. 형태상 맷돌 아래쪽은 3점, 위쪽은 2점이다. 이 중 맷돌 아래쪽 3점은 거대한 자연석에 새긴 것이다. 맷돌 위쪽 2점은 아래 부분이 사선으로 홈이 나 있다.

특히 대형 맷돌 아래쪽에는 화주를 밝힌 명문이 있는데 맷돌 측면에 상하 두 줄로 ‘化主 淸學’이라고 선으로 새겼다. 자연석 맷돌은 삼층석탑 아래에 놓여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청학(淸學, 1570년~1654년)은 서산의 문도이며 장흥 관산인으로 13세 때 보림사에서 출가했다고 한다.¹¹⁴⁾ 이로 미루어 이 대형 맷돌은 중창주인 소요대사와 같은 서산의 문도인 청학이 화주하여 17세기 중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114) 청학(淸學)[1570년(선조 3)~1654년(효종 5)] 성은 홍씨(洪氏). 자는 현주(玄珠), 호는 영월(詠月). 전라남도 장흥 출신. 아버지는 광명(光明)이며 어머니는 강씨(姜氏)이다. 13세에 출가하여 가지산 보림사(寶林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이때 강원도의 교과과목인 사집과(四集科)와 사교과(四敎科)의 경전을 배웠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며 고향 정진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수행에 매진하였으며, 지리산의 부휴선사(浮休禪師)를 찾아 도를 묻고 다시 묘향산 청허선사(淸虛禪師)를 찾아 깨달음을 얻고 전법제자(傳法弟子)가 되었다. 그 뒤 후학들에게 불경과 선을 가르치면서 임진왜란으로 쇠퇴하였던 불교의 중흥에 헌신하였다. 만년에는 금강산에서 좌선하였고, 지리산에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특히 시를 즐겨 지었으며 이들을 통하여 그의 선적 체험과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나이 94세로 임종계(臨終偈)를 남기고 앓은 채 입적하였다. 제자들이 화장한 뒤 사리를 거두어 보림사에 탑을 세웠다. 법맥을 이은 제자로는 무하자(無何子)·학순(學淳) 등 10여 인이 있으며 저서로는 문집인 『영월집』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종익, 1997년)

대부분의 맏돌은 1779년(정조 3)에 桐坡堂 定心禪師에 의해 건립된 대웅전 중건과 관련성이 높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24년에는 건립된 尋牛庵과 1965년에는 건립된 인법당(대웅전)에서 사용된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4) 돌확

요사채 서쪽에 위치한 이 돌확은 원형으로 움푹 패어 있다. 윗면과 원형의 함몰부는 반질반질하여 상당한 기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은 대충 다듬고 말았다. 제작 시기는 맏돌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을 것이며 해방 이후 종인선사 주석 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석등

대적광전 입구 화단 좌우에 위치한다. 높이는 280cm정도이며 하대석·간주석·상대석·화사석·옥개석·상륜을 모두 갖추었다. 상·하대석에는 8엽의 겹친 연꽃무늬를 돌아나게 새겼다. 화사석 안에는 전구시설을 하였고 1990년대에 종인선사 주석 시 만든 것이다.

6) 괘불지주

무설전 옆에 있는 사각기둥 모양의 괘불지주는 땅에 박혀있다. 그 간격이 310cm이고 괘불지주 높이 133cm, 너비 35cm, 두께 40cm이다.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현재 경내에 괘불은 없다.

V. 마무리 말

지금까지 연곡사 경내에 남아 있는 석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양식적 특성과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조성 배경을 살펴보았다.

연곡사의 경내에 남아 있는 문화재는 크게 통일신라 말기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옛 유물과 현대 유물로 크게 나누어진다. 시기적으로 이어서 정리해 보자면 먼저 통일신라 말인 870년 즈음에 동승탑과 삼층석탑이 세워진다. 창건기 당대인 9세기 후반 경에 동승탑비도 건립되었다. 고려 초기인 979년에 현각선사비가 세워진다. 삼층석탑 안에서 발견된 금동여래입상은 현각선사 활동기인 10세기 중반에 삼층석탑을 수리하면서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승탑(현각선사탑)도

현각선사탑비와 짝하는 현각선사의 승탑으로 적어도 979년 직전에 사역에 안치된다. 간주석과 하대석만 남은 석등과 삼단주좌를 마련한 초석도 이 무렵에 만들었을 것이다. 이후 고려 중기·고려후기·조선 초기의 유물은 보이지 않다가 逍遙太能大師가 연곡사에 활동한 기간(1627~1649년)인 17세기 중반 경(1640~1649년)에 淸學(1570년~1654년)이 化主한 대형 자연석 맷돌이 제작된다. 이어 1650년에 소요대사 부도가 세워진다. 그리고 경내에 흩어져 있던 각종 석조물인 일단주좌를 마련한 초석과 맷돌들은 1779년(정조 3)에 桐坡堂 定心禪師에 의해 건립된 대웅전 증건과 관련성이 높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24년에는 건립된 尋牛庵과 1965년에는 건립된 인법당(대웅전)에서 사용된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비록 세 차례의 병화로 석조유물로만 연곡사의 역사적 향기를 가늠해 볼 수밖에 없어 아쉽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수확은 없지 않다. 현각선사탑비의 글씨에 대한 모든 자료(탁본 및 실물)를 수집해 판독과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본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여러 문헌에서 언급한 내용을 석조문화재에 대입해 해석해 본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연곡사의 문화적 실체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문헌

丁時翰, 『山中日記』.

『逍遙堂集』, 동국대학교도서관, 『한국불교전서』 제8책.

『亂中雜錄』 3(『退耕堂全書』 2, 韓國寺刹全書(上).

「道說國師傳」, 1894년(탈고), 1957년(간행), 『東師列傳』.

범해 撰·김윤세 譯, 1994, 『(완역본) 동사열전 : 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제원.

『朝鮮金石總覽』 上, 1919, 조선총독부.

「大東金石目」, 1979, 『大東金石文』, 亞細亞文化社.

李 俔, 1932, 『大同金石書』,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강희자전』

『佛敎學大辭典』, 1988, 『望月佛敎大蘇典』(I), 弘法院.

『한글대장경』 164, 1978, 동국역경원.

『한국불교대사전』 1, 1993, 한국불교대사전 편찬위원회편, 명문당.

조선왕조실록 :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문 집 : 「逍遙堂集」, 『牧隱集』, 『靑溪集』, 「頭流山紀行錄」, 「孤潭逸稿」, 「中觀大師遺稿」, 『南遊記』, 『遊方丈錄』, 『梅泉集』,

사적기 : 曼宇 鄭秉憲 집록, 1924, 「附 智異山 鰲谷寺 事蹟記」, 『海東湖南道智異山華嚴寺事蹟』

지리지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東國輿地志』(1656년), 『輿地圖書』(1757년~1765년), 『伽藍考』(18세기 후반), 『梵宇攷』(1799년), 『鳳城誌』(1800년경), 『湖南邑誌』(1872년경), 『湖南邑誌』(1895년), 『求禮續誌』(1925년)

고지도 : 『東輿備攷』(1682년경), 『輿地圖書』(1757년~1765년), 海東地圖(1750년대), 지승(1776년 이후), 비변사인방안지도 호남지도(18세기 중반), 『靑邱圖』(1834년), 여지도(19세기 초), 광여도(19세기 전반), 『大東輿地圖』(1861년), 『大東方輿全圖』(1861년 이후), 1872년 구례현지도, 『湖南邑誌』(1872년경), 『湖南邑誌』(1895년)

지형도 : 朝鮮總督府(編), 朝鮮五萬分一地形圖[陸地測量部, 大正7년(1918년)]

■ 금석문 교감 역주

李智冠 校勘譯註, 1994,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證聖慧燈 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伽山佛敎文化研究院.

_____, 1995, 「求禮 鰲谷寺 玄覺禪師塔碑文(原文校勘, 역주)」,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2, 伽山佛敎文化研究院.

황호균, 2000, 「鰲谷寺 玄覺禪師塔碑 校勘」, 《特輯》 全南地域 金石文 校勘 1 : 『불교문화연구』 제7집, 남도불교문화연구회.

■ 답사기, 신문기사

金昌浩, 1949, <내고장의자랑! 옛美術을 차저서, 感懷의 古僧都 燕谷寺篇>, 東光新聞 第965號(6권), 東光新聞社(광주).

노산 이은상, 1938년, <지리산탐험기>.

이준엽, 2014.08.21., “거북선 원형, 연곡사에 가면 볼 수 있다”, 불교신문.

■ 도록, 보고서

李啓均, 1993, 「연곡사 연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李榮文, 1993, 「연곡사의 위치 및 환경」,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崔仁善, 1993, 「연곡사 주변의 불교 유적」,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黃鏡均, 1993, 「연곡사의 불교 유적·유물」,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黃鎖均·林永珍, 1993, 「연곡사의 시굴 조사」,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구례 연곡사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2013, (재)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연곡사.

『구례 연곡사 지표조사 보고서』, 1993, 전남대학교 박물관.

『全南文化財圖錄』(國家指定 및 全南地方文化財圖版과 解說), 1975, 社團法人 韓國文化財保護協會 全羅南道支部.

■ 단행본

강우방, 2001,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 (주)월간미술.

고명석, 고광영, 1998, 『100문 100답 하 (불·보살·신중편)』, 대원정사.

高翊晉, 1989, 「新羅 下代の 禪 傳來」,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求禮郡史編纂委員會[編], 1987, 『求禮郡史』, 구례군사편찬위원회·전라남도.

권상로 편, 1979, 『韓國寺刹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김정희, 『신장상』, 대원사.

金晉郁, 2011, 『지리산, 바람은 풍경으로』, 디자인흐름.

문화재관리국, 1968, 『文化財大觀』, 보물편.

_____, 1977, 『文化財大觀』, 국보편.

- 엄기표,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 정영호, 1974, 신라 석조부도 연구(新羅 石造浮屠 研究), 신흥사.
- _____, 1986, 석조 II 국보 14, 예경산업사.
- _____, 2012, 「朝鮮時代の 石造浮屠」, 『博物館紀要』 2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진홍섭, 1968, 「석조건축물의 사자의 용례」, 『예술원 논집』 7집.
- 허 균, 2000,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사례』, 돌베개.
- 韓國佛敎所究院, 1978, 『華嚴寺』, 一志社.
- 『한국의 사지(현황조사 보고서)』 전남 1, 2011,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원.
- 黃壽永編, 1972, 『金石遺文』 第三輯, 韓國美術史學刊.

■ 연구논문

- 강삼혜, 2006, 「나말여초 僧塔 塔身 神將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252,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2009, 「(附錄) 연곡사의 연혁과 석조미술」, 『천은사의 불교미술』, 佛敎美術研究 調查報告 第1輯 -, 국립중앙박물관[편].
- 강우방, 1995, 「석굴암 불교조각의 도상적 고찰」, 『미술자료』 56호, 국립중앙박물관.
- 김두진, 1986, 「신라하대 굴산문(掘山門)의 형성과 그 사상」, 『성곡론총』 17, 성곡언론문화재단.
- _____,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一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 57.
- 김부견, 1983, 연곡사 부도의 조형양식 및 그 조형의장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사덕 외, 2002, 「연곡사 북부도·동부도 긴급보존처리 및 원형복원」, 『保存科學研究』, 제2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혜진, 2010, 『전라도와 경상도 석조물에 나타난 주악상에 관한 연구 - 가릉빈가를 중심으로 -』,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梁承律, 1988, 「金立之의 聖主寺碑」, 『古代研究』 6. ; 朴淳發, 『聖住寺』, 保寧市·충남대학교 박물관.

- 문명대, 1980, 「新羅四天王像의 연구」, 『佛敎美術』5, 동국대학교박물관.
- 박경식, 1994, 「9세기 신라 석조부도에 관한 고찰」, 『문화사학』 창간호, 한국문화사연구회.
- _____, 1994, 『통일신라 석조미술연구』, 학연문화사.
- 朴相俊, 2002, 『新羅下代 塔碑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영구, 2005, 『양산 통도사의 석조부도 연구』,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호, 1996, 『조선시대 석종형부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춘규, 1976, 「鷲谷寺 浮屠에 관한 一小考 : 八角堂式 浮屠의 樣式 變遷을 中心으로, 全國大學生 學術研究發表 論文集 : 人文 分野.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제1집.
- _____, 1983, 「鷲谷寺 浮屠에 關한 一小考, 향토문화 제8집, (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
- 성춘경, 2003, 「소요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20호, 한국문화사학회.
- _____, 2003,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제20호, 한국문화사학회.
- 蘇在龜, 1999, 「新羅下代 石造美術樣式 研究方法論」, 『美術資料』 62호,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01,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연칠, 1997, 「부석사 조사당 벽화」, 『문화사학』 6,7호, 한국문화사학회.
- 신용철, 2008, 「造像經과 新羅石塔」, 『法 소리없는 가르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 _____, 2009, 「신라 불탑에 있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불교학연구회.
- 엄기표, 2003, 『석조승탑』, 학연문화사.
- _____,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고』, 학연문화사.
- _____, 2008, 「통도사의 조선후기 석조 부도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6집, 불교미술사학회.

- 윤미루, 1982, 『신라말 고려초 승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레성, 1987, 『부도에 나타난 운용문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2012, 「朝鮮前期 浮屠의 特徵 研究」, 『文化史學』 37집, 한국문화사학회.
- 이영순, 2013. 12, 「조선후기 범종형 석조부도의 양식과 특징」, 『문화사학』 40집, 한국문화사학회.
- 李晋吾, 1990, 「逍遙大師-풍운의 시대에 任運自存할 詩僧」,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 이현수, 2005.8, 『한국 팔각당형 승탑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鄭明鎬, 2002, 「연곡사 東·北 兩浮屠의 相輪 資料에 대한 新考察」, 『文化史學』 제17호, 한국문화사학회.
- 정영호, 1968, 「중원(中原) 청룡사지(靑龍寺址)의 조사-보각국사정혜원용탑과 석비 및 석등을 중심으로」, 『史叢』 12.13, 고려대학교.
- _____, 1998,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출판부.
- 趙俸進, 1991, 『朝鮮 前期 求刑 浮屠의 始原에 관한 考察- 檜巖寺 浮屠를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崔仁善, 1997,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道詵의 浮圖殿址와 石棺」, 『문화사학』 6·7호, 한국문화사학회.
- 최응천, 1997, 「통일신라 범종의 특성과 변천」, 『경주사학(慶州史學)』 16집, 경주사학회.
- 편수현, 2010, 『구례 연곡사 동승탑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호, 1998, 「한국 삼중기단석탑의 출현과 전개에 관한 시고」,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 _____, 1998, 「한국 삼중기단석탑의 출현과 전개에 관한 시고」,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 黃壽永, 1979, 「新羅 景德王代의 白紙墨書華嚴經」, 『歷史學報』 83, 역사학회.

■ 인터넷 사이트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공개 서비스 <http://www.museum.go.kr>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 <http://gb.nl.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